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1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가. 국방부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가. 국방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11월 13일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도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을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10시05분)

○소위원장 강대식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2항 국방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했습니다.

이두희 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를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사기 진작과 AI와 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 항목별로 이렇게 나가나?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세부사업 단위?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세부사업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설명드리고요.

○소위원장 강대식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차에 보시면 75개의 세부사업 단위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총 한 190여 건 정도 금액을 의사결정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목차 다음의 1쪽입니다.

자료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첫 번째, 연번 1번 세부사업명 장교인건비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각군 회전익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한 장려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교인건비에는 세부내역 항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에 대해서 항공수당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장교의 경우입니다. 장교가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료 3쪽입니다.

해군 함정근무자의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7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증액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내가 이 부분은, 일단 장교인건비 중에 회전익 숙련 조종사들 여당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셨는데 황명선 위원님 예결위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 돼서 제가 이것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전익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약 188명의 10년 이상자가 전역을 했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50명 정도가 매년 나가고 24년 희망 전역자 중의 80%가 소방청 및 산림청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군은 연 비행 횟수가 200~240회인데 산림청은 70~80회 정도, 소방은 40~60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봉이 산림청에 비해서 한 1500만 원이 적고요.

문제는 군은 작전 대기가 많고 국가급, 산불이라든지 재해재난 등의 부가 임무를 많이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임무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10년간 사고가 2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군은. 그래서 사망이 3명이나 됩니다, 사고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요구를 하나면 정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1명의 정조종사를 양성하는 데—양성비용은 평균 약 22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들이 월급이 작고 수당이 적어지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데 회전익은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결국 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소방·산림청으로 나가게 되면 이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 10년 이상 정도 된 사람이 정조종사로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나가면 결국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1명당 매년 2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년간 양성을 해도 사고 한 번 나면 헬기 1대에 200억, 300억짜리 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나다 보니까 스스로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싶지 않고 또

그들이 임무 수행을 그렇게 어렵게 해도 산림청에서 나가는 것보다 봉급도 적고 근무 여건도 나쁘다……

그런데 지금 고정익 조종사들 같은 경우엔 2010년부터 월 10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못 받다 보니까 설문을 했습니다. 조종사 1000명한테 설문을 했는데 만약에 연장복무 수당이 생기면 전역을 좀 보류하겠나 했을 때 96.5%가 연장복무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용만으로는 이걸 다 보상할 수 없지만 비용이라도 위험에 노출된 조종사들한테 보상을 한다면 동일한 조건이면 군복을 입은 그 상태 그대로 군대에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31억 6000만~7000만 원 정도는 육군만 대상이 아니고 해군도 연 10명 정도가 전역을 하고 있거든요, 회전익 조종사가. 그다음에 공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는데 지금 공군의 고정익만 연장복무 수당을 받다 보니까 차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산림청의…… 공히 이 부분에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위원** 강선영 위원님이 다들 동의했는데 저만 딱 지목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조종사 유출 심화로 우수 조종사의 지속 가능한 복무여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육군항공학교를 직접 가 봐서 그분들의 여건과 실태도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증액 동의하고 또 예결위 차원에서든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자료대로 증액되는 걸로 의결하고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나중에 한꺼번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건 장교 인건비였고요 이번에는 부사관 인건비입니다.

부사관 인건비에도 4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4쪽의 2번, 부사관 인건비의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국방부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부사관 인건비 기본급 예산 6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자료 5쪽입니다.

아까 장교 인건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해군 해상초계기 조종사 항공수당, 2번의 부사관분 예산 1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입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2번의 부사관 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아까 장교와 비슷하게 해군 부사관의 경우 함정근무자 함정근무수당 17억 증액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입장은 전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연번 2번 같은 경우 국방부 실소요는 7조 1723억인데 편성안은 7조 2373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안을 제출할 때는 국방부 소요만큼 제출했는데 기재부 편성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여기 감액만큼 650여억 원이 추가로 편성돼서 나와서……

○부승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 기재부 나와 있지요? 심의관 안 나와 있나요?

○임종득 위원 나오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백날 하면 뭐 해요. 기재부가 안 나오면……

○부승찬 위원 나오던데 왜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결국 기본급 예산은 약간 고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650억 원을 과다 편성했어. 제가 보기에 이것 옛 먹어라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심의하시다 보면 지금 이런 항목이 몇 개가 됩니다. 다수 금액을 저희가 삭감하는 데 동의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650억이라는 게 겹값도 아니고 뭔가 기재부와 국방부 간에…… 이런 정부 편성안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이라든지 예산 이것은 그냥 산출이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이걸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국방부 너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65억도 아니고 650억이에요. 이렇게 격차가 클 수 있냐 이거지. 기재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까 헬기도 마찬가지로 31억 증액하겠다고 난리인데……

이것은 설명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임종득 위원 저도 한말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저도 똑같이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승찬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기재부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국방부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떤 데는 몇십 억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설득이 안 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기재부와 국방부 사이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회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야기 못하는 뭐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 뻔히 나오는 건데 이걸 몇백 억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작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몇십 억, 몇 억도 못 주겠다고 하는 기재부의 논리 자체를 국방부가 설득을 해야지요. 문제를 삼아야지요. 여기 와서 ‘지금 예산안에 저희들도 모르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국회에 와 가지고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쌍방 간에 소통을 해 가면서 죽 계속 해 나가는데, 우리 요구안과 기재부 검토안을 받고 하는데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은 최종안을 받을 때 담겨서 받다 보니 이것에 대한 조정은 다시…… 국회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저희가 확인한 것을 좀 질문……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회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위원장한테 좀 그걸 하고……

○강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차관님, 저희 방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분 하사 6.6%, 중사 6.0%, 380억 원인데 정원이 100이면 85.7% 수준의 실질 운용률을 고려해서 국방부는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85.7%의 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원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현재 정원이 아니라 운용 수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만약에 하사 처우가 좋아져서 하사가 100% 증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액했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갑자기 병력의 모집이, 희망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증가되더라도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다 증액도 아닌 감액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국방부가 85.7%의 실질 운용률을 고려해서 감액하겠다고 하시는 게 이게 나중에…… 감액을 하는 목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신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방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숨겨진 뭐가 있지 않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잘못 계상을 한 건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요구안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는데 편성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추가로 더 담긴 안이 왔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좀 전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승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소상히 납득을 시키고 그런 다음……

지금 심의관한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는데 여태껏 예산할 때는 심의관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저번에 복지개선소위도 하면서 성일중 위원장이 기재부 측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끝내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연락은 해 났으니까, 참석하고 안 하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재네들 소관인 것 같은데, 연락을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아시고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계속 진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대식**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감액을 시켰다라고 하면 원래 크게 문제 제기가 돼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재부의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국방부에서 제안한 내용보다 더 증액을 해서 이 퍼센티지를 잘못해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방부가 전력체계나 군장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예산을 필요한 것은 반드시 또 챙겨 주고 살펴 주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는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안의 입장에 동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서 신속하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재부의 이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왜 이렇게 했는지, 예를 들면 시정과 주의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지적을 하고, 정부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더 이상……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자료대로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병인건비 부분입니다.

자료 7쪽, 연번 3번입니다.

병인건비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병에 대해서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직근무수당 2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연번 4번 군무원인건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이것도 국방부가 군무원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기본급 예산을 편성했는데 55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군 군무원에 대해서 함정근무자 함정근무수당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군무원에 대해서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군무수당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자료 10쪽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병영식당 군무원 영양사 의무 배치 확대를 위해 예산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입장은 앞에 3건은 수용이고 마지막에 병영식당에 영양사 확대 배치 관련해서는 일부 수용으로 건의드립니다.

마지막 영양사 확대 배치 관련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는 병영식당 영양사 확대 배치 관련해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영양사 확대 배치를 위해서는 군부대의 특수성에 맞는 급식 관련 기능별 역할 재정립과 이에 따른 영양사의 적정 배치 소요 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 구조 개혁에 따른 현역 직위의 군무원 전환 등과 연계하여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제가 한말씀……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군무원 영양사 의무 배치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차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3억 용역비 증액을 하고……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기재부에 대한 시정, 주의조치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요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예산소위 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기재부에다가 국방위 차원에서 강력 경고, 주의, 시정조치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나중에 차관님하고 잠깐 정회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 후에 차후에 회의 말미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일단은 수석전문위원, 7페이지 영양사 의무 배치 건 용역 3억, 100억에서 3억 증액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설명.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11쪽, 연번 5번입니다.

세부사업명 건강보험부담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아까처럼 인건비에 대응되는 건강보험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은 보수 대비 비율로 산정되는데 국방부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25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많이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건강보험부담금도 대응에서 과다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입장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용입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일단 감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정부 측을 수용하고 조금 전에 제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난 뒤에 무슨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2쪽, 연번 6번입니다.

세부사업명 기본급식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두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입니다. 첫 번째 내역은 장병 중심 급식체계 전환, 부대별 장병 선호품목 메뉴 확대에 따라 식재료 조달이 다품종 소량화되면서 식재료비가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26년 예산안은 하루에 한 명, 1만 4000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가를 1000원 올리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101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민간위탁 급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급식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식당의 경우 식당 운영비가 식재료비를 잠식하여 군 직영식당 대비 식재료비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급식비 사업보조비, 하루 한 명당 2000원의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총 329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입장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이 기본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오랫동안 사실 국방부 차원에서 숙원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들이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1500원 단가를 올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이 두 건인데 1500원과……

○임종득 위원 밑에 것은 민간위탁 급식 관련된 것은 또 다른 개념이고요. 이것은 기본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대비해서도 단가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1500원으로 올리면 현저히 향상이 됩니다.

○임종득 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급식 관련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 차원에서 드는 비용 자체가 단가를 까먹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것을 현실화 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재료비 가격 단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상에 달라……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된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는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차관님, 제가 병사들에게 돈을 올려서 양질의 급식을 준다는 원론적인 것은 동의합니다.

이 급식비가 지금 20년도에 얼마였냐면 8493원이었습니다. 20년도에 8493원, 이게 1만 5000원이 되면 40% 이상 인상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각 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물자 보급 지시 항목에 1종의 기준량을 얼마로 정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전체, 일종 부식.

왜? 병사들이 지금 밥을 현저히 조금 먹거든요. 그런데 부대에서는 쌀이 정해진 그램 수만큼 밥을 안 하면 안 되고 잔반 처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비를 올려서 양질의 것을 제공한다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질을 좀 검토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자 보급 지시라는 항목의 1종 딱 들어가면 1인당 된장이 얼마 쌀이 얼마 다 정해져 있지요?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잔반 처리하는데 옛날에는 돼지한테 줬지만 지금 다 돈 주고 치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가하면 잔반 처리에 대한 비용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할 때는 2020년에 8493원이 2026년도에 정부안이 1만 4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다시 무엇인가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좀 찾는, 진짜 TF를 만들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 식당의 경우와 일반이랑 차이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은 시설비도 내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다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밀키트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품질이 굉장히 좋은 밀키트를 개선해서 조리에 대한 것도 줄이고,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관리가 보급대에서 3일치를 부식을 해서 이송하는 문제, 저장하는 문제, 조리하는 문제, 질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 전반을, 돈을 지금 올리자는 거에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돈으로만 해결하지 않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한번 병영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햇반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식단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조리과 대우는 정도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단계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조리하는 부대와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잔반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서……

파병가는 부대들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옵니까? 다 캔으로 김치 오지 않습니까? 뜯어서 반조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으로만 계속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의 보급, 부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자 보급 지시의 기준량, 쌀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밥을 하면요 고봉으로 식판이 넘칩니다. 반도 안 먹고 다 버리거든요. 그 조리 안 하면 지휘관들이 처벌받습니다, 일종 남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액도 줄이고 그러면 그 줄인 것을 다른 부식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물자 보급 지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보건복지부랑 협의하시든지 해서 국민들이 드시는 양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돈만 올리지 말고 큰 틀에서 하자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총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이것을 나중에 부대마다 배정을 할 텐데 사실 부대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부대 인원이 크면 규모의경제학이 적용이 돼서 1인당 15000원, 14000원이 굉장히 많고 또 서북도서나 그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실 때 규모의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고려해서 서북도서나 격오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두 번째, 민간 위탁 식당의 경우 식당 운비가 식재료비를 잠식하여 군직영 식당 대비 식재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질이 향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전방 부대나 이런 직영이 되지 않는 부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병들의 급식에 대한 차별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 식재료 물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이런 형태의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지 않는 전방 부대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텐데, 굉장히 큰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단순히 1번에 대한 급식비 단가 상승 이것은 민간 위탁을 하든 아니면 기타 민간 위탁을 하지 않는 부대들 간에 장병 1인당 책정이 되는 금액일 텐데 민간 위탁과의 차별화를 하지 않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예를 들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병들한테는 식사를 제공을 해야지요.

저는 그래서 군무원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이런 형태로, 뭔가 직영 체제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민간 위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류 의견이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국방부 차원에서 민간 위탁하지 않는 장병들에 대해 급식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만약에 유사시에 무슨 사태가 발생해도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 꼭 말씀을 드리고.

앞서 임종득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안보다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더 과다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계속 지적을 해 가지고 장병들 급식비 단가 인상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가 안 됐어요. 저희들이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이렇게 의결해 가지고 예결위, 본회의 그다음에 소소위 해 가지고 마지막 정부안…… 최종적으로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주신 내용들은 과다하게 편성이 됐고 오히려 이런 안들은 군 장병 급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먹고 입고 하는 것은 우리 장병들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안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 저희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우리 장병들의 먹고 입는 것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랑 해 가지고 정부안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처럼 똑같은 형태가 또 반복될 우려가 큼니다.

물론 이번에 앞서서 저희 국방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기투합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계속 예결위에 참여한 분도 계시고 또 정부 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왜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첫 번째, 민간 위탁과 직영 간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부분 또 부대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서 직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두 번째, 급식비는 저희가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최초에 1500원으로 협의를 했는데

1300원에서 1000원만 인상해서 1400원으로 정부안에 담겼고 이번에 감액……

○**황명선 위원** 15000원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는 것이 담겼고 국방위와 예결위 사이에 저희가 또 추가로 기재부 협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감액되는 만큼, 감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증액에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증액 소요에 최종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기재부와 실장급·차관급·장관급 협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감액되는 만큼 증액에 이 소요들이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임종득 위원** 작년에는 아예 증액 자체가 안 됐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랬어요? 기재부랑 얘기 잘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일단 1000원은 담아 뒀는데 추가적으로 더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채우나 당직이나 저희 숙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감액되는 만큼 그 외에 증액으로 담길 수 있도록 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감액되는 것 가지고 자꾸 제3, 제4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만 가는 거고…… 차관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체 폴예산에 감액된 만큼 국방예산에서 그만큼 증액을 시키겠다 이런 복안,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들리는데 사실 기재부에서 그렇게 응해 줄까 싶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되면 15000원, 돈이 같아집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게 아니라 직영에다가 플러스 2000원을 위탁은 더 해 주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왜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탁을 하게 되면……

○**소위원장 강대식** 위탁하다 보면 인건비 때문에 그렇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업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입찰할 때 전부 다 그것 감안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현재는 감안하고 들어와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역구인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식자재 값이 좀 낮지만 좋은데, 이게 처음에는 업체들이 마진을 좀 적게 남기고 하더라도 잘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속되면 급식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 차원에서 이것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장병들이 먹는 양이 줄어들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저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좀 전에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쌀이 요새는 몇 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1종 계를 봤기 때문에, 한 끼에 192g 이랬어요. 보리가 54g…… 이러면 식판 24인분인데 보통 한 식판 위에 쌀이, 밥이 한 이만치 올라옵니다. 밥이 안 돼요, 식판에 찌는데. 지금 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직접 군대에 가 보지는 못했지만 정량대로만 다 한다고 하면 아마 밥이 설익거나 밥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MZ 시대 애들 밥 먹는 것 보면 우리 밥 먹는 것 반쯤 정도밖에 채 안 먹더라고 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전 장병들에게 계속 1일 한 끼 정량이 계속 그렇게 투입되다 보면, 잔반 처리라든지 쌀을, 밥을 좋아하지 않는 지금 세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정량 자체를 좀 줄이는 것도 괜찮다.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뭐 말할 것 없겠지요, 전부 다 양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80년도, 81년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1종에 관한 정량들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예.

○국방부차관 이두희 일단 1종, 쌀의 양은 현저히 줄여서 아마 위원장님 계신 때에 절반도 안 될 만큼 양이 줄었을 것이고 조리 방법도 스팀으로 찌는 게 아니라 가스취사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밥도 집밥만큼 맛있게 잘되고 있고 메뉴도 지금은 1식 3찬 개념이 아닙니다. 국, 김치…… 병사들이 요즘 김치 잘 안 먹습니다. 국은 아예 안 먹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일품요리로 해서 단품으로 밖의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고 더 좋은 병영식당으로 해서 하고 휴일 날은 브런치로 해서 아침 겸 점심으로 하고 굉장히 양식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현저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에서 보실 수 있으면 많은 우려 부분이 불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이때까지 위탁하는 데는 직영하고 인건비에서 오는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식당이 직영하는 것보다 조금 부실했던 거예요? 그렇지는…… 부실한 데도 있고 잘하는 데도 있겠지요. 물론 내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부실하다 이 뜻은 아니구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우리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영 직영하는 곳하고 위탁하는 데…… 내가 일례를 들어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여 줬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실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업체에 2000원 더 올려 주면 그것보다 더 나은 식단을 형성할 수가 있나 이것을 내가 묻고 싶어요. 돈만 2000원 더 올려 줘 놓고 맨 개네들이 하는 행태는 또 그렇다. 중국산 김치 갖다 넣어 놓고 다른 고기 갖다 넣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래 가지고도 만약 개선이 안 된다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러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개선되도록'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게 잘 안 되는데, 단칼에 원아웃제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퇴출을 시켜 버려야지 영…… 군 급식에 위탁은 못 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3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열악한 처우로 인한 군 민간조리원의 채용 부진은 군 급식의 맛과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하에 군 조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신규 수당,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 예산 반영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민간조리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채용이 안 되잖아요, 특히 전방지역에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5만 원씩 올려 준다고 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저 전방에 가 가지고 민간조리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주로 지역민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임종득 위원 그 지역민들이 하고 싶어도 조건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군 간부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식사 맛있게 잘 만들 수 있고 자식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채용하는 기준 자체를 뭐 뭐 해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해 놓으니까 그걸 따지를 못해요. 그 자격을 맞추지를 못해서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낮춰 주고 거기에 맞춰 주고 하면 그 부대에 전방에 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군인 가족들이 자식들 보듯이 장병들의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안 올리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올리십시오. 올리는 것 찬성하는데, 그래도 채용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규정을 바꿔 가지고 그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군 간부 가족들이 조리원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면 채용도 되고 그다음에 군 가족들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군인들도 좋아지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것 검토 좀 하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결산심사 때 위원님도 그렇고 강선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그 부분을 지원 자격 요건을 현실화해서 채용 공고 표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이것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계속……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자료 14쪽, 연번 8번입니다.

이번에는 읽는 문제입니다.

사업명 기본피복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군 피복의 국산 소재 활용과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투피복체계 4개 품목의 국산화 적용 시 단가가 인상되

는 분 3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군 피복류의 전·평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원사, 원단 등 국산 소재가 적용된 것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먼저 앞부분 30억 원 증액 관련해서는 불수용을 건의드립니다. 애초의 저희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군 피복류 소재 국산화는 산자부나 기재부, 조달청,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국내 소재 시장의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적정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신중검토입니다.

마찬가지 산자부,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내 시장의 소재 국산화 가능성 검증 후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부승찬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부승찬 위원 사실 30억 우선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우리가 4개 품목에 대해서 국산화를 우선적으로, 국산 소재 활용하고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어려운지, 정말 이렇게 국산화를 하면, 국산 소재를 쓰면…… 군수관리관이 답변을 해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실, 그러니까 천을 짜기 위한 원사는 90%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합니다. 그 수입한 것을 여기서 천으로 짜게 되면 그게 국산 천이 됩니다. 그리고 천을 수입해서 우리가 재봉만 해도 국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 메이드 인 코리아이지만 실이나 천은 대부분 90% 이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천 이걸 전부 다 국산화한다면 단가가 한 2배 이상 상향돼야 된다고 제가 섬유연합회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섬유연합회나 이런 측에서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군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산을 입어야 되지 않는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부대의견에 대해서 신중검토인데 이게 사실은 그냥 국산 품목을 우선 구매한다 이거잖아요, 획득한다.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국산을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왜 신중검토지요, 차관님?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국산으로 하는 것은, 현재 국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부터 천까지 다 하는 문제는 여러 관계기관 의견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해가 됐습니까?

○부승찬 위원 안 됐어요.

○소위원장 강대식 안 됐어요?

관리관,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군 장병들이 입고 있는 외피 이것을 성능 개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업체에다가 ‘이것 너희가 한번 개발해 봐라’라고 이렇게 어레인지를 합니까?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성능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좋아졌다, 그랬을 때는 개발한 그 업체에다가 우선 납품권을 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조달청에서는 1개 업체한테만 일방적으로 다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예를 들어 성능 개량을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업체에 해야 됩니까?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성능 개량할 때 전적으로 업체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국방부 하고 산자부하고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국방부한테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돈은 안 댄다면요? 개량하라 할 때 국방부에서 돈을 대 줍니까?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산자부하고 국방부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노 멜트 노 드립(no melt no drip)이 대표적인데 업체가 개발하는데 산자부하고 국방부 예산으로 업체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만 전적으로 주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정부안대로 갑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정부안대로 한다는 것은 수용 안 한다는 얘기 플러스 부대의견도 채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에 자료 15쪽, 정보화 사업 쪽입니다.

자료 15쪽,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 보시면요, 국방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신규구축 사업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위한 신규 예산 6억 84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장비정비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정부 측 의견은 첫 번째 안은 수용이고 두 번째 안은 불수용으로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장비정비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26년도에 추진 예정인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신규구축 ISP 사업 및 국방 AX 거점 사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이므로 증액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제시하는 안만 계속 불수용합니까?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말은 거점센터 구축, 전국에 5개 거점 그다음에 육해공, 해병대, 뭐 이렇게 해서 거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AI, AX 전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군수사령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군수사령부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준비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범 모델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군수사령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대전 거점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의 안은 맵아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일정 부분 씨앗을 틔웠어요. 그런데 이게 모델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쭉 애초에 어떤 특정 예산을 반영시켜서 갔던 게 아니고 결국은 K-방산 4대 강국 진입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기업과의 정보 공유부터 시작을 해서 보안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거대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가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군수사령부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축적돼 왔던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러다가는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아무것도 못 해요, 국방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AI만 부르짖다가 끝난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수사령부에 제가 로비를 받거나 청탁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에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되고 이 모델을 가지고 거점센터 구축하는 데 활용하시고.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지금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불수용한다는 데 동의 못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소위원장 강대식 예,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 정부 측과 위원님들 간에, 위원회와 서로 동의를 안 되는 부분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쳐 놓고 회의를 해서 서로 정리하면 효율적 회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용하고 또 위원회가 수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정부가 불수용하거나 또 위원님들이 크게 문제를 삼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마지막에 뒤로 미뤄서 정리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차관님, 이것은 제가 반영을 하는 것을 반대해서 안 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든 국방에서든 AI를 향해 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작년 대정부질의서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면 AI가 AI 기능을 똑바로 하려면 AI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중요하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료를 학습시킬 것인가의 자료에 대한 소팅(sorting)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자료는, 지난번에 제가 현대로템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면 다 비문이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방AI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AI센터에 어떤 자료를 집어넣을 것이고 어떤 자료를 집어넣지 않을 것이냐의 자료 축적의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GPU 1만 장 규모로 구축한다, AI데이터센터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느 부분에도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대정부질의에서도 당시 총리한테도 질의했는데 일단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비문의 기준, 아시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권에 2급 하나 있으면 그 전체를 2급 비밀로 취급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분류하셔야…… 국방데이터센터에 그 자료를 넣는 사람이 과거에 보안담당관같이 이것은 몇 급이고 이것은 몇 급이라는 비밀 분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이것은 국방혁신 4.0에서도 계속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데이터센터에 자료가 모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이것은 지금 국방AI데이터센터 GPU 1만 장 규모로 시설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방AI데이터센터에는 무기체계 데이터 따로 있고 작전개념 데이터 따로 있고 인적자원 데이터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 투자되면 안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의 76쪽에 보시면 육군 군수사의 육군 무기체계에 대한, 육군 군수사의 지상전력 소프트웨어/데이터 융합센터 신축을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AI데이터센터에는 육군 장비 따로 공군 장비 따로 해군 장비 따로, 육군의 싸우는 개념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국방부라는 큰 컨트롤타워 안에 국방부가 데이터센터가 설립되기 위한 데이터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맞는 국방부 상위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정비는 3군 통합 정비라는 개념으로 운영하잖아요. 정비는 3군 통합 정비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육군 따로 공군 따로 해군 따로 만들면 중복되고 나중에 연결을 시키는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라고 하고 정부에서 투자하라고 하니까 무분별

하게 제대별, 기관별, 상급부대, 상·하급부대 간에 나뉘지는 이 센터를 만든다는 문제,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문제를 이제는 큰 틀에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속도는 느리되 방향은 일관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GPU 1만 장 규모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26만 장 준다고 하면 정부에서 2만 장 갑자기 갖고 온다 그러면 시설 2배로 늘리실 겁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연 국방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전체의 수량을 전체 통합하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전장에서 마찰이 많은데 데이터센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게 구축이 안 돼서 끊어지면, 지금 부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절하고 이걸 승인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장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종합하고 필요시에 어떻게 끊어 가지고 엣지 클라우드를 할 것이냐, 어떻게…… 클라우드로 올리려면 비문이 아닌 것을 클라우드에 올려야지 어떻게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에 비문이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반대가 아니라 큰 틀에서 다른 개념으로 정립을 하자라는 기준을 좀 가서 가자 건의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국방부에서 AI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해 올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님 주관 두 차례의 토의, 민간까지 포함을 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AI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시켜 오고 있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에 국가 안보 및 국방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서 가고 있고 데이터 관리 문제나 국방 AI데이터센터가 가기 전의 중간 단계, 그때까지 말만 하고 안 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 우려도 담겨 있고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데이터센터 현재 데이터센터, DIDC라고 용인과 계룡대에 있는 그 부분에 AI를 접목시키기 위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고 그다음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사 관련되는 부분도 제가 전임 군수사령관에 있을 때부터 군에서 선도적으로 AI를 접목해서 해 온 축적된 그 능력을 잘 알고 있는데 국방 AX 거점을 5개소 하는데 그중에 대전에 하나 있는데 이걸 군수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에 실제로 195억 원의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와 대전, 해군은 부산, 공군은 양재, 합참은 용산에 이것 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고를 올리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세부적으로 좀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아까 15쪽에 있는 연번 9번에 대한 내용을 확정을 안 짓고 정회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이 추가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장님. 연번 9번 2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추가적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2건 다 수용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자료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자료대로 하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연번 10번은 하나의 사업인데 사실상 4개의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정보보호, 시설유지관리, 수송활동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결정에 따라서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국직부대의 통합 재배치를 위한 이사비, 사무실 보수 등 예산 23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분산 배치된 국방부·합참은 단독청사로 복귀, 기타 기관은 가용공간을 활용해 영내 재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관련된 예산 증액 내역들은, 238억의 내역을 브레이크 다운한 것은 네트워크 구축 등, 시설보수비, 화물이사비,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정리를 하고.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소위자료대로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17쪽입니다.

연번 11번 세부사업명 통신시설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통신시설 사업의 4개 내역사업은 2개년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초년도에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26년도 예산 2억 원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군은 해군과 공군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연번 12번 세부사업명 통신시설 사업과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지휘통제체계 장비 설치 공간 마련을 위해 통신실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 사업입니다.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합동 지휘통제체계 또 연합 지휘통제체계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인 전력운영비 분야에서도 전력·냉방설비 등 관련 장비 및 설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서 통신시설 사업에서 1억 원,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에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계룡대하고 그 원…… 이쪽 서울하고 보면 이게 조성된 지가 꽤 지났잖아요. 계룡대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조성됐다고 보여지는데,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 이전에 설계했던 것과는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재설계 혹은 공간 확장 이런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만 하고 있고 C4I 시설 관련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됨에 따라서 해 오고 있고 병크 자체를 기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하는 것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계획에 없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된 설계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정부안에 반영이 돼 있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 정도고 전반적인 부분은, 시설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계룡대 같은 경우는 87년도면 환경개선검사 설계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 필요성 등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저 부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는 게 이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전기, 소방, 공조, 환경시설, 네트워크 서버, 사이버 환경설비 통합 등인데요.

보니까 여기에 U3 계통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설치될 한국군 지휘통신체계, 사이버전 장관리체계, 연합 C4I 합동지휘체계가 전력화되면 현 시설이 그 소요의 27%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차관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다면 그러면 이것이 27%밖에 안 돼서 어차피 확장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환경설비를 투자하면 중복 투자가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전력화 계획에 역대로, 3000억 1000억 이 정도 단위로 통신체계가 구분되고 또 EMP 방어시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관님, 지금 일단 이 환경개선을 하는 것부터 우선순위가 아니고 향후에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는 시설 공사를 하고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일단 급한 긴요시설 같은 데, 긴요시설인 건 인정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나중에 U3하고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주변에 뭐 불이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26년부터 28년까지 146.8억이 계획돼 있고 이것은 설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통신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간 확장을 포함해서 시설 공사가 대규모로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연번 13번 사업명 정보보호 사업입니다.

내역이 두 가지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사이버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보직 및 역량개발교육 지원을 위해 객관적 역량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 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22년 북한의 무선 백도어 해킹 시도 사례를 고려할 때 2030년 이후로 예정된 무선해킹탐지체계 사업의 착수 시점이 늦다는 문제의식하에 국방부가 주도하여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금액은 미제시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에 금액이 미제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했을 때는 11.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대응 수단으로 무선 백도어 해킹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서 11.4억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11.4억을 해 달라 이 말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이 사이버인력 역량평가체계 구축 저는 반대하는데요. 왜 반대하냐면 제가 이것 다 꼼꼼히 알아보니 평가체계라고 그래서 무슨 시스템인 줄 알았습니다, 일시금 3억 이 정도 한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평가 프로그램 만든다는 거거든요. 장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평가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이버전문인력 획득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지원율도 없고 전문인력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버전문인력에 대한 평가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게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3억 800 주지 마시고 오히려 사이버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고 이 평가체계는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사이버전문인력, 우리가 예를 들어 영어 같으면 토익 점수, 텡스 점수로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이버전문인력을 예를 들어 해킹능력이다 또는 사이버 방어능력이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워낙 전문 분야다 보니까. 해킹대회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사이버전문인력을 평가해서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든지 어떤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평가 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민간의 사이버전문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민간의 사이버전문가 이것은 국방이라는 것과 차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민간에 기준이 있을 텐데 국방 사이버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들이 어제오늘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년 이상을 해 왔는데 아직도 역량평가체계가 구축 안 됐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또 만약에 안 됐다면 이것은 시급하게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증액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갑자기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이야, 이것’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이게 만약에 역량평가체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소요를 제기하고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반영이 돼서 지금 이게 돼 있어야 될 상황이고 올해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자체에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기재부에서 뺀 거예요, 이것?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일단 이 평가체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국내에 이런 평가체계가 없었고 통상 고대 사이버정보보호학과 인력을 우수한 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해킹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신영역이다 보니 객관적 평가 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작년에도 기재부 단계에서 탈락이 됐고 올해도 기재부 단계에서 탈락이 돼서 증액으로 국회 단계에서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이게 없다면 정말 시급한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백선희 위원.

○**백선희 위원** 사이버전문인력이 지금 군에 몇 명 정도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평가 프로그램이 국내에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없는 것인지, 국방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방위정책관 최용삼 준장입니다.

지금 사이버전문인력은 한 300여 명 정도 되고 그 인원들은 고려대 전문사관에서 배출된 인원이 한 13기 정도 배출이 됐습니다. 그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전문인력을 여태까지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평가체계에 의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체계를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기재부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신설 예산이다 보니까 증액을 기재부에서 삭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평가체계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사이버 전문 인력을 관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수당과 관련해서 모든 인력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가 체계를 통해서 좀 공정성을 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적재적소에 맞는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백선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국내에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가인데 그 부분은 국내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그러면 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방 쪽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데서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도 사이버 역량평가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국내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분명히 사용되는 것이 있고 보통은 프로그램이나 평가 제도를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기존의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리뷰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외의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요. 혹시 추가적인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국외 사례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국외에서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전혀 프로그램이 없는 거를 새롭게 도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 부분이 저는 역량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예산이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이버 전문 인력이 주로 아까 고려대 전문사관학교에서 배출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정 정도 조금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적인가 지금은 3억 얼마를 투입할 만큼 실효적인가, 왜 그것들의 프로그램과 그것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검토는 했는가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따가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지금 이게 3억 아닙니까?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3억이,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역량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ISP 용역 같아요. 용역 예산 같아요. 그렇지요?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3억이 없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그러니까 역량 구축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 자체를 계속 미룬다는 게 이게 과연 거대한 국방부에서 지금 할 애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3억을 확보를 못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 조차도 못 하고 있다고요? 이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백선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각종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사례들까지 다 보면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3억 반영 안 되면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 또 올릴 겁니까?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국방부에서 3억 충분히 융통 가능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을 좀 바꿔 달라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사이버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픈해서 국가 간에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정보의 영역이고 고도의 비닉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해외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

○백선희 위원 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 3억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또 보기에 따

라서 큰돈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종득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으니 용역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을 지출을 하더라도 이 업체가 적절하게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두 단계로 조금 구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기초조사라든지, 기초설계를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파악할 있는 그게 용역의 단계라고 하면 하고 그리고 이 업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가 역량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3억을 투자하고 나중에 또 부적절하니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2단계로 접근하는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2단계 중에서 ISP, 그러니까 선행연구 개념의 1단계의 3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 용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선행연구 개념입니다.

○백선희 위원 연구 개념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보기에 제가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보여져 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증액해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다 승인해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꼭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돈 3억이, 거대한 국방부 예산이 돈 3억이 없어서 못 하나 이러는데 이 목에 대해서는 사실 전용도 하기가 조금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 19쪽, 위에는 3억 900만 원이고 밑에는 11.4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대로 그냥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20쪽입니다. 연번 14번입니다.

세부상업명은 국방 ICT 혁신기술(R&D)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정부안 미 반영 세부과제 1건 추가 반영을 위해 예산안 52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역은 유무인협업 ICT 기반기술 개발사업 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연번 15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3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25년 이상 근무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52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살사망률이 높은 군 간부의 정신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1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장복무 가산금을 위해서 21억 12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저는 일단 간부 정신과 진료비 제공하는 거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유가 ‘진료 사실 노출 우려로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해야 될 진료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차관님, 우리 다 알다시피 이거 국가예산 지원해 가지고 병원 갔다 오면 기록에 다 남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병사가 아니고 간부지 않습니까? 간부가 정신과 문제가 있으면 저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서 전역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걸 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해서 진료를 해 줘야 된다는 건 큰 틀에서 국민이라 생각 하면 이해를 하지만 간부가 과연 우리가 정신과가 있는 간부를 군에서 계속 이들을 근무 하게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군의관 관련해서, 이 장기군의관 연장복무 가산금은 민간 출신의 군의 관에 대한 대상입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관학교 출신들은 아니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예,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한 번에 월 400이라는 돈은 좀 크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그 두 건 같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첫 번째 정신과 진료 관련해서는 민간병원에 가면 일단 예산을 쓰더라도 이게 진료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간부가 군복을 입고 군의관들하고 가고 또 대기하고 병사들도 같이 보고 하면 굉장히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고 의외로 요즘은 정신 질환의 단계에 가지 않더라도 상담을 요하는 사람

이 간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부들, 자살이 아시다시피 병사보다는 간부가 자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의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정 사태 이후에 군의관 군 의료가 거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처우가 밖에 나가면 뭐 연봉을 수억씩 받는데 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연봉을 받고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군의관이 필요한 그런 절박함에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군의관하고 법무관들은 6년 차만 되면 소령 달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대위로 임관하고……

○강선영 위원 대위로 임관하고 소령 바로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소령 바로 6년 차에 달고요. 되게 진급이 빠르고 소령 이상 중령되면 연봉이 적지는 않아요. 군의관이 밖에 나가면 훨씬 급여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이해는 하는데 이게 월 400이면 모든 군의관 동일한 계급에 다 똑같이 준다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월 400을 언제까지 주는 겁니까, 차관님? 지원하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 전역할 때까지 주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일종의 수당 개념으로 해서 계속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 계급 소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의무복무가 끝난 이후에도 의사로서 군대에 잔류한다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이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2쪽입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의무장비획득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의무기동장비획득 내역사업 중에서 1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환자후송버스입니다. 납품기한을 고려하여 2년 차 사업으로 집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1차 연도 계약금은 10%만 반영하는 형식으로 해서 26년도에는 9억 3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은 22쪽 하단입니다.

연번 17번 의무물자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른 군 제빙기 식용얼음의 세균 수 등 기준치 적합여부 검사를 위한 병리재료비 2억 원이 증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소위 자료 23 페이지입니다. 연번 18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의무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서북도서 장병 및 지역주민의 진료여건개선을 위한 백령도 지역 MRI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65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차관님,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특수 의료 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3조에 MRI는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고 MRI가 있으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1명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치, 서북도서에 설치하는 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됐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26년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병행해야 됩니다.

○강선영 위원 해야 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태워 놓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지금 여기 본예산은 약 28.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여기 6500만 원은 최초에 착수하기 위한 부분인데 본예산을 반영 추진하면서 27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병행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랑 방사선사도 추가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제 군의관들 중에서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보직을 할 예정입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도 해병대 6여단의 MRI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도 필요하기는 합니까라는 이와 별개로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소위자료 24쪽입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장병여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전속부임여비는 전속, 파견, 원대 복귀, 임지 부임 시에 지급하는 여비로서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한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사업명 보건복지지원 사업입니다. 3개의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서북도서 근무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지원금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북도서지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사비용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현역여군, 제대군인 여성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여군 창설 기념행사 예산 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지금 여군과 관련돼서요. 2027년까지 14.7%인가 15%로 간부 비율을 높인다는,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현재 그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아둔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국방부 내에 여성국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계속해서 여군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 는 이 중사 사건을 보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잡아 주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또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이런 게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군에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여군이 여군을 전달하는, 또 이게 여군 창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달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여성국이 됐든 무슨 국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7년이 금방이고 30년 되면 또 20%, 30%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그것에 비해서 여전히 남군 중심의 구조로 지금 꽤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 여군 창설일도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지금 제가 부승찬 위원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는 육군본부에 여군담당관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군 정책과 복장 전반적인 것을 해 줬습니다. 2020년까지 국방부가 주관해서 이 행사를 해 줬던 겁니다. 왜? 거기에 여군 정책과라는 게 있었어요, 육군본부에 있던 여군담당관실 없어지면서. 국방부의 지금 대통령실에서 마주 보고 있는, 국방부 식당에서 보이는 그 연병장이 여군 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차관님, 지휘관이 되면 지휘관 휘장 어디에다 달지요? 왼쪽 가슴에 달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남자들은 정복에 포켓이 있어서 거기다 걸 수가 있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군 정복에는 양쪽 가슴에 포켓이 없어요. 휘장을 달 수도 없고요 훈장을 받아도 정복에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공군은 포켓이 있어요. 공군은 진짜 항상 앞서가는 군이에요. 제가 이것을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이 포켓이 있어야 지휘관 휘장을 가슴에 걸지 지휘관 휘장을 어디다 걸니까? 밑 포켓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지휘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휘장을. 그래서 포켓 하나 만들어 줘라 휘장을 걸게. 그것 안 해 주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것 20년까지 행사를 했는데 행사 못 해서, 21년·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23년·24년은 안 되니까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협조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태워준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것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우리 비례대표 의원실 가난한 의원실에서 돈 대 가지고 올해 행사를 한 겁니다.

(「잘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태워 달랬더니 임종득 위원님이 달랑 1억 넣었냐고 하는데, 부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얘기했는데 전쟁기념사업회도 전시실 키워 달라고 했는데 여기 전쟁기념관에다가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2%밖에 안 되는 전시실이 되냐고.

돈 안 태워주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 여군들 사기 떨어집니다.

군복 복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에 포켓 만들어서 휘장도 좀 붙이게 해 주시고요 훈장도 좀 붙이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사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차관님, 여군 창설일 며칠인지 아십니까? 기념 행사일이?

(「9월 3일」 하는 위원 있음)

9월 6일. 올해는 3일이 금요일이라 했는데 9월 6일입니다.

어쨌든 부승찬 위원님 이런 의견 내신 거 속기록에 남을 텐데 여군들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 위원** 의사진행……

○**소위원장 강대식** 예.

○**황명선 위원** 나 정말 얘기 안 하려고……

우리 예산 심의해야지요. 그래서 필요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아주 간단하게 30초만.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 그 이름이 아니라 성평등정책담당관.

○**강선영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차관님, 두 번째 거 보면 이사 비용이 22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것이 2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서북도서 쪽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연간 보직 교체 소요만 뽑은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내년 예상, 보직을 변경해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될 그 인원에 대해서만 해 놓은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러니까 실소요만큼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오케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연번 21번 장비획득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2025년·2026년 장기계속계약사업 중에서 2026년도 연부액 초과 금액, 즉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에 따른 집행 불능 금액을 포함해서 총 59억 원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9개 세부 사업에서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7쪽입니다.

연번 22번 사업명 화력장비 획득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입니다. 무기고·탄약고 관리하는 개선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위해서 스마트 총기·탄약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28쪽입니다.

연번 23번 항공장비 사업입니다.

내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정 이유 첫 번째 보시면요 항공작전 수행 주체인 주요 전투임무기의 정비 능력 유지를 위해서 보오스코프키트 확보를 위해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항공탄약 견인차 보충 및 노후 교체를 위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보오스코프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추가 확보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부승찬 위원 노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125대가 있는데 그중에 96대가 많이 노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29쪽입니다.

연번 24번 함정장비 사업입니다.

3개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고속단정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함정장비 아웃 보드모터—부품인 것 같습니다—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함정장비 폐쇄식 잠수기 세트 획득을 위한 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30쪽입니다.

연번 25번 통신전자장비 사업입니다.

내역이 7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휴대용 재밍건 확보를 위해 16억 원 예산 증액, 두 번째는 전파환경측정분석기 구매를 위한 예산 11억 원 증액, 세 번째는 부대 내외 부 방송을 통한 임무지원 장비 예산 증액을 위한 5억 만 원 증액.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해병대 도청탐지 장비 교체예산 1억 7000만 원 증액. 다섯 번째입니다. 해안 감시용 고성능 CCTV 예산을 위한 2억 원 증액. 여섯 번째입니다. 주·야간 감시를 위한 감시장비 1억 원 증액 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부대 취약지역 및 주요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서 경계 작전 능력 향상과 보안 검증 완료된 장비 도입을 통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7건 전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차관님, 지난번에 국방위 위원님들이 6여단을 갔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마무지한 사업이 막 들어갔거든요. 최초에 정부 측에도 없는데, 25년·26년에 없는데.

그런 정도인데 상황 전파용 방송 시스템, 도청 장비, 해안 감시용 고성능 CCTV가 이렇게 중요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막 문했다고 그래서 예하 군에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그런 사업 마구 무분별하게 집어 넣는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해병대는 해 줘야 돼요. 너무 열악해. 아무래도 해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가보면요 정말 열악해요. 그다음에 장비 노후화율도 가장 높고.

○강선영 위원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승찬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군기는 가장 뭐한데.

○소위원장 강대식 저도 동의합니다.

○부승찬 위원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육해공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만 평균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살피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2쪽입니다.

연번 26번 사업명 일반장비 사업입니다.

내역이 3개가 있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구형 방독면 10만 개에 대해서 김서림 방지용 필름 구매 예산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사단 수목제거 작업 간 안전성 보장을 위한 고소작업대 도입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병장비 추가 확보에 필요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3사단 수목 제거 작업 관련해 가지고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2억이 필요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사실은 이게 전군의, 특히 GOP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임종득 위원 아니, GOP가 3사단만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

○임종득 위원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게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3사단만 없어도 문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인데 3사단만 반영하는 것도 우습고.

3사단이 누구예요? 어째서 이게 3사단만 이렇게 검토가 되는지를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 한번 저를 이해를 시켜 보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간의 상황을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 계속 보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야지요. 지금 뜬금 없이 갑자기 3사단 하나만 해 가지고 2억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단이 지금 몇 개데, GOP 사단.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차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문

제를 제기해 봤어야지요. 이게 뭐지라고 바로 딱 집어내야지요. 지금 차관 확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똑같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임종득 위원 그 답이 뭐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제 여기서 지금 더 절박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소연을 많이 해서 반영됐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국장이 누구예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이 정도 논리 가지고 3사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해 봐요. 내가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반영을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다음 안전에 GOP 사단 전체적으로 육군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돼 있고……

○임종득 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여기에 전체 안전에 추가에 있어서 증액 의견이 나와서 국방부에서 수정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3사단이나고요. 아니, 국장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올리는 것이지.

GOP 사단이 몇 개예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10개입니다.

○임종득 위원 10개 중에 왜 3사단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3사단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래서 총소요를 파악했을 때는 31대가 필요한데 이제 한번에 되기 어려우니 금년도에는 5대만이라도 2억 원 우선 반영으로 건의가 된 겁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지금 답을 못 하면서 계속 돌리고 있어. 내가 왜 3사단이나고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은 지금 다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소위원장 강대식 밑의 고소작업차하고 위의 고소작업대하고 이거는 다른 품목이지요? 관리관, 다른 품목이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예, 작업대하고 작업차는 다른 품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품목이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예, 작업차는 엔진 없이……

○소위원장 강대식 이렇게 합시다. 이것 3사단에 대한 이 부분만이 아니라 GOP 전 부대에 지금 고소작업대 배치 현황하고 필요한 것 전체 파악해서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할 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32페이지 26번은 일단 접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33쪽, 연번 2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병참물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고소작업 수행인원 추락 시 신체 보호 목적으로 추락보호 에어백 구매 예산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군수관리관님.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강선영 위원 물자배당표에 병참물자로 반영돼 있는 품목입니까, 이게?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현재 물자배당표에는 없는데 이게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신규로 제기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고소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거기에 다 에어백 설치를 한다고 하면 좀 죄송한데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에어백 어느 회사가 이것을 가지고 구매하라고 로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물자배당표에 없는 물자를, 배당표에 안 들어가 있는 물자가 어떻게 병참물자로 이게, 25년, 20년 없었던 게 증액이 돼서 들어옵니까? 저는 이걸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고소라는 게 기준이 뭐니까, 높다는 게? 높다는 것의 기준이 2m가 높은 겁니까, 10m가 높은 겁니까, 100m가 높은 겁니까? 저는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고소작업대라는 것은 높이가 있는 장비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에어백이 규격이라든가 이게,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넣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고소작업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2m 이상 사다리나 이렇게 할 때는 안전장치를 강구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여러 회사가 있어서 특정 회사가 아니라 경쟁계약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누크는 높이가 3m가 높거든요. 그러면 시누크 정비할 때마다 모든 항공기 옆에 에어백 다 설치하고 아침에 정비하나요, 매일 아침 정비하는데? 시누크 32대 아침 일일 검사 전 항공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소작업대를 하려고 에어백을 다 설치하고 일일 검사합니까, 아침에 출동하기 전에? 예를 들면 그런 기준이 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적용하면 물자배당표에 어떤 것에 어떻게 할 거다 배당표부터 정리하고 적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

○백선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개당 평균 단가하고 몇 개를 예상한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한 개에 한 110만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수요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예, 수요는 1800개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비요원들 위주로 판단하고 있고 정비요원이 생명줄을 천장으로 해서 걸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에어백을 착용하고 해야 되고 또 전방에 고소작업대에 올라가서 2m 이상 올라가는 사람들은 착용하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게 에어백이 어디 지상에 설치하는 매트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람 몸에 보호대처럼 부착을 해서 추락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구멍튜브처럼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로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대테러하게 되면 11m에서 역레펠하면 레펠할 때 이것 차고 뛰어내립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작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707이나 이런……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군인이 다 작전요원이 지금…… 군인이 작업요원 따로 있고 작전요원 따로 있는 것 아닌데 이게 군부대잖아요, 군부대. 군부대에 그러면 레펠하는 사람들 다 에어백 차고 그러면 공수 강하할 때 에어백 안 차 가지고 죽으면 어머니들이 컴플레인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데요? 항공기 정비할 때 다 에어백 차고 올라가서 정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항공기 위의 블레이드 위에 올라가서 정비할 때 그러면 올라갈 때 다 에어백 차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채워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채워 주실 건데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장비유지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비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장비정비 여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7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필요액은 내역별로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35쪽, 연번 29번입니다.

사업명 기동장비(유지)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장기 조달품목의 조달 지연을 방지하고 자주포의 안정적 전투가

동물 유지를 위해서 전투긴요 수리부속 소요에 116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36쪽입니다.

연번 30번입니다.

세부사업명 화력장비(유지)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자주포의 안정적인 전투가동물 유지를 위해 전투긴요 수리부속 소요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37쪽입니다.

연번 31번, 사업명 항공장비(유지)사업입니다.

두 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위쪽의 국산항공기(T-50 계열)의 PBL—외주정비사업입니다—정산금 확보를 위해서 7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국산항공기(KT/A-1) PBL—외주정비사업입니다—정산금 확보를 위해 10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지금 국산장비 PBL을 하게 되면 PBL을 할 때는 사전에 어느 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리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정하는데 왜 이게 사업 종료 시 때 정산금이 왜 발생합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를 들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최초 계약금액이 940억 원이었는데 사업 기간에 실제로 납품 실적 기반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103.5억 원이 초과가

해서 추가 소요가 된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PBL을 할 때, 계약할 때 저희도 수리온 PBL 설정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PBL을 설정하려면 그 수리부속을 5년간 사용해 봐야, 그 장비 5년을 사용해 봐야지만 어떤 부위의 부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PBL 계약을 하는데 이게 업체 위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군 위주가 되도록 PBL 리스트를 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통신장비정비도 지금 들어간 건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아직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PBL 부분 계약을 좀 잘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38쪽입니다.

연번 32번, 통신전자장비(유지)사업입니다.

6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해군 함정 및 항만시설 보호 목적의 24시간 무중단 운용 감시 장비를 위한 정비 예산 39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술항공항법장비정비 관련된 정비 예산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전수행 및 부대 안전관리를 위한 영상감시체계의 장비 정비 예산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군위성 성능개량사업에 따른 외주정비비 정산금액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군위성 PBL 사업 적기 확보 및 군위성-Ⅱ 성능개량 장비의 원활한 장비 유지를 위해 6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자광학 감시체계 유지보수 예산 4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체 안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32번, 통신장비, 감시정찰장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술확보통제장비 운용 개소가 증가해서 36개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36개 보니까 지상 운용 11개, 함정 운용 25개인데요. 이게 TACAN이라는 장비입니다. 이게 TACAN이라는 장비인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4년에 국산화가 됐습니다. 국산화가 됐는데 이게 동일한 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함정 운용에 25개 소가 미국 탈레스에 외주정비를 맡겨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그러면 현재 노후화가 됐다면 미국 탈레스 것을 국산화가 됐는데 국산화로, 외주정비를 줄 게 아니라 교체하는 것은 안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은 이제 수리하느냐 아니면 아예 이것을 외산을 떼 내고 국산을 신규 설치하느냐 하는 부분은 기술적 검토와 비용분석이나 또 작전적으로 어떤 연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동 관련되는 부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외주정비가 증가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노후화된 장비를 외주정비를 자꾸 주려면 이게 떼서 미국을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이걸 그런데 그게 25개예요, 함정 운용 것이. 미국 탈레스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는 게 낫느냐 아니면 24년도에 국산화가 됐어요, TACAN 장비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낫냐, 만약에 계속 운용할 거면, 그걸 여쭙보는 겁니다.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40쪽입니다.

자료 40쪽, 연번 33번입니다.

세부사업명 특수장비(유지)사업입니다.

두 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 특수장비(천마·비호복합) 창정비 여건 보장과 핵심 수리부속 확보를 위한 108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수장비(천마·비호) 외주·창정비 108억 원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41쪽입니다.

연번 34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정보체계(유지)사업입니다.

내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군사위성에 관련해서 국가위성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금강체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후속지원사업 및 단종부품 확보사업 필수 소요예산 4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42쪽입니다.

42쪽, 연번 35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수송활동 사업입니다. 3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드론 보험료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초급간부의 이사화물 현실화를 위한 이사화물임 26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장비운송차량 운전관, 장거리 인솔관 여비 현실화를 위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차관님, 이사화물비 관련해서 만약에 262억이 한 번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이사 화물비만이라도 좀 예산을 산정해서 협의할 때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안 편성부터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안 돼서 지금 재차 시도하는 건데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만약에 차선책을 택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단독이사 화물비는 191.26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4쪽 연번 36번입니다.

사업명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재난 대비 태세 점검, 부대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위한 여비 부족 예산 4억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차관님, 계획 대비 실시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점검이나 진단 나가게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여기 예산 사용은 다 됩니다. 통상 부족합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진단과 점검은 100% 다 계획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이걸 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예산집행은? 부족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족합니다.

○부승찬 위원 지금 부족했으니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해서 나가요? 숫자를 줄이나요, 아니면 대상지역을 사단이면 여단급으로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차관님, 제가 답변.....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부족분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충당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n분의 1을 해서 갈라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만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1만 5000원 이렇게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비를 깎아요, 70%로.

○부승찬 위원 그러면 개인 돈 쓰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은?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제일 부족한 게 여비지.

○부승찬 위원 정상적으로 나가는 다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이런 안전점검은 계획 대비 100% 다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획된 것을 안 나간 것은 적은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연번 37번, 세부사업명 탄약정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탄약정비 시 실제 출동 대비 부족 여비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46쪽입니다.

연번 38번, 사업명 비군사화 사업입니다. 내역이 2개가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폐탄약 처리를 위한 비군사화 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으로 잔여사업비 전액 반영이 필요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폭발물 제거 작전 간 실제 출동 대비 여비 부족 예산 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비군사화 관련해서요 민간위탁 운영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한 군데만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째 그 업체랑만 계약하는 거예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 업체하고 제 기억에는 한 세 번 정도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경쟁 발주를 했는데 이 업체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수의계약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어느 정도 업체들이 들어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한 두세 개 업체는 들어오는데 결국은 낙찰은 이 업체가 됐습니다.

○부승찬 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10년이 더 된 거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예.

○부승찬 위원 거의 그냥 독점하다시피 하더라고. 물론 경쟁입찰인데 중간에 뭐가 있었

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다음에 26년도에 끝나면 그때는 전향적으로 또 한번 경쟁 입찰을 내서 꼭 그렇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군사화를 하게 된다면 일종의, 그냥 여기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저쪽은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사업장이 한 군데 있어서 통틀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자료 47쪽입니다.

연번 39번, 세부사업명은 군수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군수정책관실 여비 현실화를 위해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의견……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차관님, 제가 여비는 다 부족한 것 압니다. 다 부족해서 어려운데 사실 상급부대 어려운 것보다 대대급 이하 어려운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대급 이하는 부사관들, 초급간부들이 자차로 가고 기름값 자기가 내고 배차도 안 해 주고 일비·식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여비를,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육군본부, 각군 본부는 충분한데 저 밑의 대대급 이하의 여비를 실비로 해 주십시오. 밑에서부터 좀 충원을 해 주고……

그래서 저는 군수정책관실 것은 확 다 까고 싶어요. 그래야 군수정책관님이 밑에서부터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위원님, 지금 여기에 군수 관련해서 이동정비나 탄약정비나 폭발물처리반이 다 사·여단급 이하에 있는 실무자들이, 부사관이나 군무원들이 가는 것에 대한 여비들입니다. 이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예하부대부터, 대대급 이하 제대부터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분배해 주실 때.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48쪽입니다.

연번 40번, 사업명 전력지원체계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시험연구비는 군 작전환경에서의 운용시험평가에 수반되는 차량·인력운용비, 전문가 자문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운용시험평가에 수반되는 시험연구비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이게 보면 사업이 지하 침투 감시 장비로부터 복합광원 피아식별 IR 시험연구비인데 왜 기재부에서 삭감됐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설명을 듣고 타당한지에 따라서 제가 이것을 동의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연구비인데 왜 빠졌는지. 한 푼도……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험평가비가 일괄 삭감이 돼서, 이게 내년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니면 또 사업이 1년 지연되는 건데 일괄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짧은 시간에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입니다.

기재부 단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하였지만 예산의 어려움상 수용비·여비 등과 함께 전액이 삭감되었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이 아무래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비해 시급성이라든지 중요도 측면에서 조금 낮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되었는데 사실 이 운용평가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군에서 직접 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1년 연장, 순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기재부가 이미 삭감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까? 지금 보면 그냥 이유 없이 15%, 10% 이렇게 기재부가 임의 삭감을 하거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증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삭감이 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재부가 분석도 안 하고 완전히 임의 삭감한 것 아니에요, 15% 딱 정해 놓고.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기재부 입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 사업 내용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정 수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선을 정해 놓고 좀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아예 딱 정해 놓고 ‘이 사업은 15% 삭감이야’ 이렇게 간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를 들면 여비는 일괄 15% 삭감……

○부승찬 위원 예, 일괄 몇 프로.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런 식으로 예산 확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맞춰야 되니까 또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일괄 삭감해서 다 까고 어떤 부분은 또 증액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런데 일괄·임의 삭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못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도 하나요, 그냥? ‘너네 여비 그냥 10% 일괄 삭감’ 이런 식으로, ‘연구비 15% 일괄 삭감’ 이렇게 아예 그냥 기준 정해 놓고 사업의 성격에 관계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처음 들어 봐요. 지난해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완전히 다르게 가요. 인건비도 그렇고 보면 ‘이것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뭔가 있구나’ 계속 이 생각밖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기재부에 대해서 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걸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에다만 설명해라 이러면 임의 삭감이나 일괄 삭감은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부도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강대식 기재부에도 우리 국방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데 실무 수준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 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건 아니고 실무 수준, 그러니까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부분은 감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호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돈이 57억이나 570억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돈 5700만 원 이걸 깎는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9쪽입니다.

49쪽 연번 41번, 사업명 민군기술협력 R&D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민군기술협력 R&D 예산과 관련해서 전력지원체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단에 있는 2개 과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41번 R&D 사업 중에 사업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신규 사업 함정 헬기

유도등 시스템,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신규 사업은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함정에 헬기……

○강선영 위원 예, 유도등.

○국방부차관 이두희 헬기 데크가 있는데 헬기유도등 관련되는 부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의 착수금입니다.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첨단전략기획관직무대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군에서 소요 결정이 다 돼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업이고, 함정 헬기유도등 시스템 개발은 헬기가 함정에 안전하게 안착을 하기 위한 유도등을 개발하는 것인데 현재 다 100% 외국산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고장 나면 고치기도 어려우니 군에서 이제 개발하도록 해 보자 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개발하면 오히려 더 단가가 싸고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1억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 단계에서 감액된 5억을 증액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사업이 비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지요?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전력지원체계인데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죄송한데 그러면 이게 왜 연구개발이 필요해요? 배 위에 이 유도등을 설치하는 건 구매하면 안 돼요?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구매하면 좋은데 구매가 안 되는, 시장조사 해서 구매가 안 되는, 현재 팔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군에서 요구하는 ROC에 맞춰서 저희가 연구개발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군사 요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헬기유도등이면 제가 생각할 때 평상시 때 대낮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간이라든지 가시거리가 제한이 된다든지 아니면 IR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일반적인 활주로등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개발까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의를 말씀드리고, 헬기가 앓을 수 있는 데크가 있는 함정이 어느 급 이상이에요? 몇 톤급 이상이에요?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제가 들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강선영 위원 헬기가 앓을 수 있는 함선이 작아요. 몇 개 안 돼요, 사이즈가. 그렇지요? 헬기가 앓을 수 있는 데크가 있는 배가 얼마 안 돼, 톤급 수가 큰 것만 앓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살 수 있는데 이걸 개발한다? 개발에 대해서 너무 소요가 적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을 왜 개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저희가 이것을 향후의 구입비랑 연구개발했을 때의 비용을 다 비교해서 개발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개발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높지 않기 때문에 2년으로 빨리 개발해서 군에서 빨리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트랙입니다.

○강선영 위원 개발해서 단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추후 확인해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총사업비가 48억 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총사업비가 48억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수입해서 쓰면 얼마 드는 그걸 지금 강선영 위원은 설명해 달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도등을, 유도하는 그 부속을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쓰면 총 돈이 얼마 드는데 그걸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쓰면 어느 정도 든다 그걸 지금, 핵심적인 걸 묻고 있구먼요.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가를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썼습니다, 개발이.

○소위원장 강대식 개발이 훨씬……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획득보다 더 싸서……

○소위원장 강대식 획득보다 훨씬 더 싸어요?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것을 준비해 와 가지고 설명해 줘 버리면 바로 이해가 빠를 건데 그걸 이야기를 못 하니까 자꾸……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확인하고 바로……

○소위원장 강대식 이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 마치기 전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국방부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앞에 보류해 놓은 것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0쪽입니다.

자료 50쪽 연번 42번, 사업명 간부양성교육 사업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정이유 첫 번째 것 보시면요 학군후보생에게 지급되는 학군생활지원금 이게 지원인원 감소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2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두 번째는 학군후보생 부교재비 이것도 지원인원 감소분에 따라서 6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단가와 인원이 복합돼서 제기된 내용인데요. 학군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지원인원 감소분 12억 플러스 생활지원금 단가 증액분 36억을 합해 가지고 24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걸 좀 섞여 있는데 일단 두 번째 것은 수용입니다. 감액 6억 6700만 원은 수용이고 그다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게 반반씩 섞여 있는데 학군생활지원금 감액은 불수용하고, 첫 번째 것은 감액만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은 감액과 증액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입장은 학군생활지원금 감액은 불수용하고 증액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에 보면 첫 번째에 있는 12억 4500만 원 감액만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것은 12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지원금 단가 인상을 통해서 23억 8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

는 이 내용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병합돼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 그러면 1번 감액인데 지금 불수용이라고 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세 번째 게 사실은 1번 감액을 포함해서 감액과 증액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것은……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황명선 위원 수용이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1번도 결국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다 수용 아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내용으로 보면 수용.

○황명선 위원 '1·2·3번 전체적으로 원안으로 수용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뜻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런데 1번만 수용하면 감액만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명선 위원 그래서 3번이 포함된 전체적인 수용 동의라는 이 얘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3번을 수용하면 1번의 내용도 같이 수용하는 것이 됩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게 알려 주셔야지.
동의합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다 수용한다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 수용, 1·2·3번 다 수용.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게 되면 1번의 감액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차관님께서 50페이지 1번은 감액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액과 증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산수를 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번은 감액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1번에서 됐으니 이것을 반영하고, 앞에 것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말이고 생활지원금 단가를 인상하라, 플러스 요인 이것만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들어가서 첫 번째 것하고 헛갈리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액은 그냥 감액을 한 거고 세 번째는 앞에 감액도 했으니 여차저차 해서 생활지원금 단가는 올려 달라 이 얘기가 아닐까…… 이게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세 번째 증감액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23억 8500만원 이 숫자가 나오려면 감액도 하고 거기다 추가로 증액이 돼야 이 계산이 나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있는 감소, 그러니까 세 번째요. 앞부분에 있는 '감소분 701명' 이것을 빼도 말이 된다. 생활지원금 단가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여차저차 증액을 한다. 그다음에 단서를 붙이면 되지

요. ‘앞에 있는 1번 감액하고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헷갈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장 기술이 조금 혼돈이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지금 백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1245억이 두 번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2385억이 1245억을 감액하고 증액시킨 걸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했을 때 2385가 나오고 여기에 첫 번째 1245억을 또 빼면 이것은 결국은 1100억밖에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을 아예 없다 쳐야 됩니다. 아닐까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래, 그게 맞지.

○국방부차관 이두희 만약에 별도로 가면 세 번째 칸의 증감액이 2385가 아니라 3630, 숫자가 바뀌어야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것 만약에 예결위 넘어가면 감액은 ‘어 이, 좋다’ 환영해서 감액시켜 버리고 나중에 증액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23억 8500만 원을 증액시켜 주는 게 아니고 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5억 증액시켜 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2억 4500만 원을 깎는 게 무색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봤을 때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간부양성교육 큰 목에, 항에 우리가 12억 4500 감액을 안 하고 놔뒀다가 밑에 증액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증액하고 만약에 증액을 안 시켜 주면 이 돈이라도 여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게 더 안 나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 입장에서는 1개만 날아가 버리는 것보다는 그걸 전용해서라도 쓸 수 있으면 그게 좋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이게 목이 틀리고 항이 틀리고, 이런 것도 모르는데 간부양성교육이라고 하는 이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저는 전용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안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국회 와 가지고 그냥 사전설명을 하고 우리가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감사 때 어떤 지적도 안 나가고 이럴 건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장님, 3개 중에 첫 번째 이 항을 없애 버리면 지금 그런 우려가 사라집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차라리 없애 버립시다. 그냥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것만 삭감했다고, 이유는 ‘적게 증액이 되었을 때는 손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앞의 것은 없애 버리자 이 말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다면 50페이지 연번 42번은 제일 위의 부분에 나와 있는 12억 4500만 원 감액 요청한 이것은 아예 통째로 빼 버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것만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런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밑에 보면 또 표시돼 있어요. ‘상기 12.45억 감액 검토안과 동일한 물량’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빼 버릴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1번을 날리려면 밑에 애스터리스크(asterisk) 돼 있는 것도 지워야 됩니다. 아닌가요? 맞지요?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밑에 3번에 ‘701명 감소분을 반영하게 하되’ 이것도 빼야 되는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것은 두고 밑에 애스터만 빼 주고……

○소위원장 강대식 이것만 빼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2번하고 3번 밑에 이것 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되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51쪽 연번 43번입니다.

사업명은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사업입니다. 2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에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외 대학 위탁교육생의 국외교육여비, 즉 체재비라고 하는데요 이것 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업여건 보장한다 하는 것은 군 유학생들을 이야기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해외 유학을 가면 예를 들어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월 2772불을 받는데 군인들은 1277불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것 원인은 뭔가요? 왜 일반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차등이 되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 주면서 왜 우리 군인들은 유학 가는데 반절도 안 되게 이렇게 주는데? 이유가 뭐니까?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래서 저희가 간절하게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유학을 가면 개인 돈을 써서 가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도 부족하지만.

○소위원장 강대식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여태까지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강선영 위원 보내주는 게 그냥 고마워서 간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돼야 된다고 저희도 예산 당국과 국회에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그러니까요.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똑같이, 동일하게는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가 안 갑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한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사실 위원 하시면서 의문점이 똑같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의 사이즈가 다른 부처의 사이즈와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지금 당직수당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직근무 하는 사람 숫자를 계산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유학도 사실은 중앙부처 1개 부 다 따져봐도 1년에 몇 명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그런데 국방부는 워낙 쪽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보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깎아 가면서 가자.

(「인원 수」 하는 위원 있음)

인원 수. 죄송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타협하면서 불이익을 당해 왔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 하시면서 능력이 되면 하여간 최대한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적게 보내야 되지. 아니, 그러면 적게 보내야 되지.

○강선영 위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답답하지, 이것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2쪽 연번 44번 사업명 국방AI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 보시면요 국방 소버린 AI캠퍼스 구축사업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기획 용역비 1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유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53쪽입니다.

연번 45번입니다. 과학화훈련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해군 첨단과학 훈련장비 중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 2개의 계

약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같은 페이지 53쪽 연번 46번입니다.

정훈문화활동 사업입니다. 2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전적기념물 및 군문화재 관리사업에서 전적기념물 설치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안보테마 국방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수용으로 1억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안보테마 국방정원의 총 사업비가 1868억 원인데 이것은 사업체계상 선행연구를 하고 또 사업타당성, 사타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행연구비 1억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 계룡이 국방의 수도로서 삼군본부가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데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군가족과 또 예비역분들까지 포함하면 실로 국방의 수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공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 토지에다가 국방정원을 만들어서 우리 군과 또 군가족들이,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제안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성 용역비 1억 정도 저는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국방에 관한 그건데 정원 하고 이런 것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쓸 돈도 많을 건데 정원 만드는 데 돈을 1800억씩 이렇게 들일 수 있겠습니까?

○황명선 위원 타당성 용역해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6·25 참전 소년병 추모비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게 몇 년 걸려가지고 겨우 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타당성조사를 해 보세요.

○황명선 위원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54쪽 연번 47번입니다.

전쟁기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명 전쟁기념사업회 사업입니다. 내역이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주한미군 기록 다큐멘터리 제작에 소요된 경비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쟁기념관의 수장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설계비 및 감리비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차관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전쟁기념관 보면 여군 역사 공간이 굉장히 작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부승찬 위원님이 수장고에 대한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예산 같은 건 안 알아봤는데 아마 전쟁기념사업회에서 급하게 못 넣는 것 같은데 거기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리모델링 끝나면 혹시 안의 전시실을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면 여기 예산에 5억 1700에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성 전시관. 여군 전시관을 보시고 금액을 좀 여기다가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는 전쟁기념관에 여군 관련 전시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에 안 태워진 부분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그건 기술적인·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새로 태워 달라는 게 아니고 전쟁기념사업회 안에 분명히 전시실 리모델링 부분이 있을 건데 같이 살펴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적극 동의하고 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도 여기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연번 48번 사업명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입니다. 2개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장병 과학화 훈련장 신축 추진에 필요한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병대 6여단 산악전 훈련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1차년도 예산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증액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차세대 장병 과학화 훈련장 신축하는 부분이 원래 예산 계획에 미리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증액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4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가는데 최초 설계비가 빠져서 증액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이게 지금 3억 5000인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3억 5600이고 총 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196억 원 사업의 첫 출발을 하려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를 설득을 못 시키니까 일단 이걸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196억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설계비가 되고 다음에 이 사업을 위한 본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됩니다.

○임종득 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설득이 안 돼 가지고 돈 3억밖에 안 되는 걸 기재부에서 태워 주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196억 사업을 가겠다고 하는 게 이게 타당한 이야기인지.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게 교육훈련장이다 보니, 교육훈련 예산이 사업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미 타이거(Army Tiger) 관련한 드론이나 전반적인 과학화 훈련 체계가 수립이 되는 건데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지금 차세대 장병 첨단 과학화 훈련센터 선행연구 중이지 않습니까? 선

행연구 끝났습니까? 선행연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총 사업비가 196억이다 보니까 사업타당성 검증, 사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196억은 사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안 됩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200억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196억이라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이거 선행연구가 안 끝나서 안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지금 단계에서 빨리 설득을 하고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하실 말씀 계세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윤봉희 선행연구는……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누구라고 밝히고.

○국방부정책기획관 윤봉희 정책기획관입니다.

선행연구는 12월까지 마무리 예정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비만 반영되면 사업은 저희 판단에는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

○부승찬 위원 해병대 6여단 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1차년도면 몇 년간 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26년부터 28년까지 3년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부승찬 위원 27억 원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27억 원인데 설계비가 5400만 원 저희가 증액을……

○부승찬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C·D등급 판정 받아서 훈련과제 숙달이 제한된다고 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계속 훈련을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안전상의 이유로?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C등급은 보수가 필요하지만, 보수해 가면서 하지만 D등급은 그 해당 과제는 제외하고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5400만 원이 증액이 안 되면 결국은 27년도로 넘어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다음에 예산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 1년씩 순연됩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좀 기재부랑 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앞의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훈련장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덩치 큰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반영되는 반면에 훈련장은 부대 운영에는 꼭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과이가 작다 보니 반영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런 것 관심 좀 가져 줬으면, 특히나 훈련장 이게 안전 취약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6여단은.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병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을 좀 고려해서 26년부터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도…… 임종득 위원님, 좀 이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6여단.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될 사안들인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국방부에서 좀 신경을 덜 썼나, 자꾸 이런 의문감이 드는 거예요. 이 예산이 54억 깎고 540억 깎고 이런 것들은 좀 그래 가지고 기재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렇다 싶은데 이견 기본적인 거거든요. 혹여 사고가 나 가지고 장병들이 다쳐 가지고 인사사고가 나고 이래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이래 가지고 언론에 대문짝만치 나고.

이런 것들만 사후약방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다 태워져 가지고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은 한 번씩 빠질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의 소통이 안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거 하나씩 볼 때마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차관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 측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6쪽입니다.

연번 49번입니다. 사업명 작전상황연습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국제 사이버훈련은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한미동맹 및 우방국과의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위한 사업으로 4억 7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57쪽입니다.

연번 50번입니다. 사업명은 공통교보재 지원 사업입니다.

2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 이유 상단을 보시면요 모터, 배터리 등 대부분의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 드론 구매단가로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14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공수교육대에서 사용하는 공수강하장비, 일명 원치라고 하는 장비의 도입에 필요한 9억 9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하는 데 애초에 예산이 반영됐다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203억 추가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200억 정도. 그 말씀 아니십니까, 이게?

○국방부차관 이두희 애초에 저희가 국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당 300만 원씩 요청했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중국산 해외 도입 부분들을 반영해서 170만 원 정도로 단가를 깎아서 반영을 해서 국산 부품 사용해서 국내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서 재차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부품 중에 영상 데이터 트랜시버, 영상을 스트리밍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국산이 안 됐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토부와 연계해서 드론 생태계 때문에 국산화율이 100%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해외 부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국토부와 논의·협의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외산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나 충전기 모터제어기, 디스플레이 조종기, GPS 같은 거, GPS는 안 되겠네요. 이런 일부 액세서리는 외산이 돼요. 그런데 꼭 핵심적인 거 GPS라든지 영상 데이터 트랜시버 같은 것은 국산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그런데 그게 딱 외산입니다, 외산. 그래서 이게 실제 외산이 아니고 중국산 몇 %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부품이 외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50만 드론 전사인데이 그러면 우리 군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인원들이 다 드론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나, 모두가 다 드론 운용가가 되어야 하나,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좀 개수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말씀하신 영상 데이터 트랜시버와 관련해서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스트리밍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50만 드론 전사라는 것은 50만 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 차관님, 해병대 사업들은 크지 않은 금액들이 계속 나오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근본적으로 왜 국방부 예산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해병대에서 이렇게 와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보면,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

지금 공수강하장비는 부대에 몇 대 있습니까? 1대밖에 없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지금 원치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명선 위원** 결국은 안전점검이나 정비, 예를 들면 고장 시에는 훈련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명선 위원** 제가 보니까 해병대 사업들이 소소하게 계속 오는데 차관님께서 오히려 상륙부대니까 특별하게…… 지금 4군 체제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예산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소소한 예산들이 계속 누락돼 있는 것 같아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50만 드론 전사 양성 이걸 지금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 1만 2000대 정도를 예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교육기관도 있고 야전부대도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개념 자체가 안 그러져서 그러는데 교육기관의 개념으로 발표한 것 중에 분대당 2대 이야기가 육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모든 교육기관에 다 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양성기관을 기본적으로 하고 보수교육기관도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전에는 우선획득 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연초부터 해서 교관 양성을 하고 자격증을 따야 할 부분들과 연결해서…… 이게 드론이 도입이 되면 연초부터 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5~6월은 돼야 실물이 계약이나 여러 가지 생산 고려하면 이루어질 텐데 그 전반기에 교관들 양성하고 해서 야전부대에도 같이 드론 교육 여건을 만들어 줘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 전반적인 내용 자체 콘셉트는 지금 어차피 드론이 차세대 전장의 주요한 게임체인저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인 콘셉트를 어떻게 잡아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냥 장관님이 나서서, 차관님이 한마디 하는 것만 봐 가지고는 ‘저것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는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남고.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초에 디자인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제대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의원실들에 쪽 한번 돌아가면서 해 주면 어떨까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

는데 그걸 위원님들께 대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마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전체 삭감액하고 전체 증액해 놓은 이것 비교해 보면 삭감액보다 증액이 2배도 넘습니다, 우리 국방부 전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에서야 이렇게 우리가 정부 측 원안 받아 들어서 예결산위로 올리지만 과연 이게 예결산위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꼭 원하는 것,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나왔던 이야기, 복지개선소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내년에 사업을 안 하고는 안 될 이런 어떤 예산이 증액되면 저도 좋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기쁘고 좋을 건데 실질적으로 원치 않은 게 증액이 되고 꼭 해야 될 그게 증액이 안 되는 이런 어떤 불합리적인 상황도 생기지 말라고 하는 법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삭감액이 증액하는 것보다 거의 한 3분의 1 수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재부에 때를 쓰고 뭘 하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삭감액보다는 증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취사선택을 처음부터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뒤에 보고 이런 부분을 상위로 올릴 것은 올리고 그래도 좀 덜 시급한 문제는 또 뒤쪽으로 미룰 것은 미루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 연번 51번, 사업명 전투발전연구 사업입니다. 2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핵·WMD 합동전투실험 추진은 전투실험 장비에 소요되는 임차비 등에 3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군 국제법 및 해양법 연구발전 세미나 경비로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구발전 세미나비 2000만 원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전용해 가지고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비용 같으면 충분하게, 본예산에 안 넣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격년제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 예산을 전용해서……

○소위원장 강대식 해서 씹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전용해서 하고 집행잔액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정규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 기재부 단계에

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완전히 이것은 기재부하고 뭐, 탁 해 가지고 ‘올려라, 우리가 본예산에 태울게’ 딱 이렇게 되었을 때 올려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올려 가지고 이렇게……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부분은 반영이 된 적도 있었는데……

○소위원장 강대식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작년에는 뭐 증액이 없었는데……

○소위원장 강대식 작년에는 전부 다 삭감해 버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 연번 52번 간부확보장려 사업입니다. 3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9쪽 상단에 보시면요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적금 사업입니다. 당초 지급 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과다 계상돼서 과다 편성된 6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사관 관련해서, 부사관 획득 여건과 장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단가 인상을 위해서 10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쪽에 군내 전문직위 단기복무 특수사관 장교입니다. 공석 발생을 예방하고 보수 측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특수사관(의무, 수의, 법무, 군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7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1쪽입니다.

61쪽 연번 53번 사업명 장병복무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4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 소요 인력 40명 인건비가 1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심리상담보조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10억 원 신규 반영 필요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서북도서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지원금 14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북도서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이사비용 65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첫 번째, 수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수용으로 건의드립니다. 심리상담보조체계 구축사업 예산 증액에는 동의하면서 우선 1억 2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22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도입을 추진 중인 사업인데 육군의 변화된 환경과 직무환경이, 다른 군에서도 시범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나서 전군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서북도서 관련되는 부분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 두 번째, 10억 98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으로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강대식 위원님께서 이 의견을 주셨었는데, 특히 우리 군장병들에 대해서 정말 여느 다른 기타의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많은 심리적 상담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우리 국방위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강대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0억 9800만 원 신규 반영 다 할 수 있도록 안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제가 차관님한테 한번 여쭙볼게요.

올해 유난히 우리 장병들 자살사고가 좀 많았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런데 현재 군 내에서 실시되는 어떤 심리검사 자체를 보니까 자기보고식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다 보면 이 검사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심리검사를 할 때 자기 방어적으로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리고 또 간부들은 보면 인사상 불이익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충 발생 시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지 않고 극단적인 시기까지 참는다든지 인내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런데 육군에서 민간에서 활용 중인 심리상담 보조장비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을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시범운영 효과 분석 결과 2023년도 7월 20일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장비에 오늘날 디지털이라든지 AI 기술을 적용해서 민간에서는 의학, 보건, 교육, 학습, 게임, 스포츠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비 측정 설문결과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항목에 대해서는 일치율이 거의 한 62~79%까지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시범 참여자들의 설문결과 신뢰도가 거의 한 66% 이상 이렇게 돼서 군 도입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상담 기피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대해서 몇 개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 가지고 차관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타난 것 보면…… 그래서 나는 자살 예방이라든지 감소를 위해서는 이 해당 사업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일부 수용해서 1억 200만 원을 한다 하는 그 자체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12개 부대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육군 2개 부대, 해공군·해병대 각각 3개 부대, 국직 1개 부대, 12개 부대를 시범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시범사업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의사를 모아 주셔서 시범사업 규모가 12개 부대인데 10배 정도 되면, 10억 정도 되면 120개 부대, PC나 이런 것들은 결국 중대급, 작은 부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해 주면 저희도 시범사업 규모를 더 늘려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저희들이 늘려 주고 안 늘려 주고 그것에 떠나 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열두 군데 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내년에 열두 군데 했을 때 1억여 원 정도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열두 군대를 해 보고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게 잘 나타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12개 부대도 지금 거점별로 이렇게 다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대별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직 부대까지 선정은 하지는……

○소위원장 강대식 아직 선정은 안 하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선정은 하지는 않았는데 부대별 유형을……

○소위원장 강대식 한 12개 정도 같으면 충분히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괜찮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봐서 12개 부대로 시범사업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첫 사업이고 이런 것 같으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빠르게 도입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두 번째, 시범사업에 1억 200만 원 정부 측 수정대로 그렇게…… 다른 의견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입니다.

연번 54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유해발굴 사업입니다.

내역이 2개가 있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유해발굴 사업에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장려금과 관련해서 지급 대상을 늘려 가지고 필요한 6억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후화된 유해발굴감식단 AI혈연관계시스템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64쪽입니다.

64쪽, 연번 55번입니다.

여기부터는 군사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55번, 사업명 병영생활관 사업입니다.

내역이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 제3공병여단 병영생활관 신축 설계비 예산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5쪽입니다.

육군부사관학교 교육생활관 리모델링 설계비 예산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사단 병영생활관 신축 선행연구 예산 8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66쪽입니다.

연번 56번, 사업명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8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보시면요 수정 이유에 내역사업 중 15사단·22사단, 2개 사단의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지침상 사업 1년 차 예산 연부율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9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7쪽입니다.

상무대 체육관 및 연병장 개선 추진을 위한 예산 1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군훈련소 훈련장 간이식당 설계비 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쪽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3공병여단 병영식당 신축 설계비 예산 75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더 좋은 병영공간 혁신 시범사업 예산 203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69쪽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해병대 9여단 급수시설 개선 예산 12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69쪽 하단입니다.

해병대 연평부대 체육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3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70쪽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2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1건만 빼고 전체 다 수용입니다.

1건은 일부 수용으로 하는데 연평부대 다목적체육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3억 1000만 원 반영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부 수용으로 해서 2.69억 원으로 수정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비가 총 5.4억 원인데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2.69억 원이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수정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1000하고 2.69하고 5000만 원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것은 실무적으로 실제로 5.4억 원이 설계 예산이어서 그걸 2년 차 사업에서 절반으로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전체 다 수용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 2.69억 원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연번 57번입니다.

사업명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해군 1함대사령부 관사 신축을 위한 선행연구용역비 8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72쪽입니다.

연번 58번입니다.

사업명 환경보전시설 사업입니다.

오른쪽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2026년 편성 이후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비 낙찰차액 3억 9900만 원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73쪽입니다.

연번 59번입니다.

사업명 정비 및 보급시설입니다.

2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양쪽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해군 P-8A 항공기 운용을 위한 정비고 개조 사업 설계 예산 1억 39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74쪽, 두 번째입니다.

31사단 무기고·창고 신축 예산 23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주 P-8A 정비시설 이것 수용입니다.

그리고 31사단 95여단 창고 이 부분은 불수용으로 건의드립니다. 그 사유는 특별회계 사업에 통합해서 증액해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업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부언은 안 하겠지만 일단 국방부에서 감시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31사단 95여단 이것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구레군에 토지 매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일부 2대대 이전사업 시설을 95여단 자체의 통합병영 막사를 새로 짓고 하면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쪽에서 올라왔지만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되고 특별회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반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나와 있는 예산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다면 정부안대로 74페이지 그 부분은 불수용으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5쪽입니다.

연번 60번, 사업명 일반지원시설 사업입니다.

6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KF-21 전투기 도입으로 정비중대 일부 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대체시설 증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설계비 1억 3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쪽, 두 번째입니다.

군수사령부 지상전력 소프트웨어·데이터융합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1억 4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77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 연병장 및 주차장 신축사업 설계비 2억 7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8쪽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함정 근무장병 지원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해병대 1·2사단 병영시설 냉난방설비 개선을 위한 설계비 1억 45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해군 지하구 소방시설 보강사업을 위한 설계비 예산 1억 49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1건만 제외하고 수용입니다.

1건 제외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특전단 연병장 및 주차장 신축사업 설계비 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수용은 금액은 2.74억 원인데 증액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차장은 진해 지역 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래서 일부 수용이면 얼마를 수용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금액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이것을 지하주차장 형태로 하는데 가용 부지가 있으면 부대 내의 가용 부지에 예산을 적게 들이고 지상주차장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주차장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예산은 반영해 주되 사업추진 방식은 지하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가용 부지 여건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차관님,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여쭙보는데 지금 60-2, 두 번째, 군수사 지상전력 소프트웨어·데이터융합센터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에서의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는 계룡대 지역에 짓는 그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기체계를 들여오면 무기체계 내에서 운영해야 될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데이터융합센터입니까? 어떤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AI를 위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장비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임베디드 내장형 소프트웨어. 그것을 군수사 차원에서 장비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소규모에 해당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군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140개 정도씩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육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것 소프트웨어를, 오래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것 성능개량 못 해 가지고 RWR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애로를 겪어 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군수사가 육군이 하면 해군 따로 하고 공군 따로 하고 해병대 따로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UH-60에 있는 RWR을 해야 된다고 하면 UH-60을 사용하는 데가 육해공군·해병대 다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는 없지만 육해공군.

그래서 이것을 군수사의 지상전력입니까 하냐? 그러면 해병대도 지상전력이 있고 공군도 지상전력이 있고 하면 이것을 군수사 지상전력 소프트웨어로 만들 것이냐, 국방부 차원의 지상전력 소프트웨어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 융합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방부차관 이두희** 기본적으로 3군 통합 군수 지원이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육군 군수사 정비 책임이 있는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3군 통합 군수 지원 체계에 육군이 공군한테 위탁, 의존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방부시니까, 각 군은 각 군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각 군에서 관리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고 유사한 장비인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다른 곳에서 나눠 하니 이것을 지상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기왕이면 같이 묶어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왜냐하면 성능개량도 계속돼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하면 육군 따로 해군 따로 공군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은 장비를 쓰면 국방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워낙 이게 방대한 수만 종의 장비에 요즘은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AI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내장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예, 그거, 임베디드.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것은 현재로는 국방 차원에서 통합하기에는 워낙 방대한 규모여서 쉽지 않은 부분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장차 이게 분명히 융합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으면 77페이지 주차장 문제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정부 측 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금액은 그대로 하고요, 워딩만 바꾸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금액은 똑같고 내용 면에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80쪽입니다.

연번 61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시설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갈등관리용역비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수용합니다.

○황명선 위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81쪽입니다.

연번 62번, 사업명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입니다.

5개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첫 번째, 육군 15사단 초소 신축 예산 1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82쪽입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지휘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8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해병대 1사단 감시기동대 관제센터 신축 설계비 1억 4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84쪽입니다.

해병대 6여단, 백령도입니다. 거점 K-3 방호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 예산 6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육군 3사단 쌍문형 포상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2억 7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86쪽입니다.

연번 63번, 사업명은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역사업인 시설관리 민간인력 활용에 대해서 전문민간인력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전체적으로 의견은 같은데 증액의 정도가 106억인 경우가 있고 65억인 경우 두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7쪽입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군 주거시설 보수 예산 현실화를 위한 40억 원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88쪽입니다.

해병대 연평부대 조수기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 8억 3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체 수용입니다.

시설유지비 두 개가 있는데 106.83억과 65.93억 원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6.83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65.93억 원은 육군의 소요이고 위에 있는 106.83억 원은 전군 소요인데 두 개 안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주셨는데 전군 통합안으로 수용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63번, 전군 106억 8300만 원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예비군 전력 사업입니다.

89쪽, 연번 64번 사업명 동원훈련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 전체를 보시면 제일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단기 비상근 예비군 운용 규모 확대 및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보상비 단가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 9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동의합니다.

○황명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90쪽입니다.

연번 65번입니다.

사업명 예비전력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3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가 5~6년 차 지역예비군은 과학화훈련장에서 마일즈장비를 도입하는 추가 도입 예산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비군 부대 총기손질업무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 3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예비군 교육용 드론 구입 예산 2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차관님, 지역예비군 자동화 총기손질 민간용역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동장비처럼 와 가지고 장비를 갖고 와서 어디다가 총을 담갔다가 빼면 수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기 분해·결합해 가지고 안의 것을 내용물을 다 빼 가지고 수리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 형태 그대로 담갔다 뺀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왜 예비군만 합니까, 전군에 해야지? 저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담갔다 뺀 총이 육안으로 더러운 게 제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이라는 게 전체적인 격발이라든지 기능 발휘를 하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좀 궁금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상근예비역이 없어지면서 총기손질을 현역들이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그다음 총기손질하는 방법은 분해해서 닦을 수도 있고 인력 절감용으로 해서 약품에 담그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명시를 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제가 이거 실무자들한테 불러서 직접 물어봤다니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다니깐요.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그러면 사람을 데려다가 분해해서 안에 총열 다 닦고 분해·결합해 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총을 그대로 통째로 어디다 담갔다 뺀다고 저한테 실무자가 직접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방부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딱 식기세척기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긴 게 정확히 식기세척기 같고 커다란 차량 형태입니다. 저희 왜 대량 세척할 때 파쇄기 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대량 식기세척기 같은 차가 와서 거기서 군인들이 다 경계하고 일일이 총기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총기를 넣고 착착착 정말 식기같이 넣습니다. 한 10정, 20정 넣고 한꺼번에 고압분사 형태로 하고 마지막에 건조까지 돼서 나오는데 제가 동영상도 다 봤고……

그리고 이게 24년에 2작사 외 7개 전사단 대상으로 1개 대대씩 다 시범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현역들은 자기들이 직접 총기 분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2작사 외 7사단 전체를 한 결과 이게 효과가 있고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됐고 그래서 이걸 지금 예비군들 총 대상으로 시범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저는 이상이 없다라는 그 이상이, 총기라는 건 기능 발휘를 해야 되는데 총기가 육안으로 이상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잘난 척하자면 총기를 닦는 오일도 다릅니다. 외부를 닦는 건 구리스가 닦고요, 총열 안에는 강중유라는 걸 해서 닦는데 구리스는 남아 있어도 되지만 강중유는 남아 있으면 나중에 총열에 딱지기 때문에 총을 몇 발 쏘고 나면 격발이 안 돼요. 그래서 박박 닦아 내야 돼요, 강중유는. 그러면 과연 이건 뭘로 닦느냐. 그러면 구리

스가 들어갈 때 강중유로 닦느냐, 강중유가 필요한데 구리스로 닦느냐. 이것은 한 개의 약품을 넣었다가 빼는데 거기를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총기 안에서는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뭉치, 무슨 뭉치지……

○국방부차관 이두희 노리쇠뭉치와 공이까지 빼고……

○강선영 위원 공이까지 다 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핀까지 다 빼고 하는지……

○강선영 위원 스프링도 다 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넣었다 뺀다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물어봤다니깐요, 어떻게 하는지.

○국방부차관 이두희 총기손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전문가신데 노리쇠 뭉치나 공이나 안에 스프링이나 핀이나 이런 것까지 다 빼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잘……

○강선영 위원 그건 안 뺍니다. 여기 사진도 제가 받았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기능이 다 발휘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격하고 화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꺾데기만 닦아 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능 발휘가 되도록 검증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반영하는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격한 후에 화약이 묻은 상태로 실험을 해 봤냐 아니면 그냥 보관만 되던 총을 해 봤느냐가, 이상이 없다라는 그 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그래서 이건 일단 좀……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근예비역이 금년도부터 0명이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해 가면서 저희가 발전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인접해 있는 현역 부대원들한테 수백 정씩 총기를 떠넘겨서 손질시켜야 되는데 요즘 젊은 병사들이 자기 총도 제대로 안 닦는데 남의 총기를 수백 정씩 닦게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완전성을 차차 보완해 가더라도 우선 사업은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상근예비역 말고 보충역을 이 대안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계로 했다고 하는데 차관님 죄송한데 검토가 필요해서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강선영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국방부 차원에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야 돼요. 지금 손질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총기손질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게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결국은. 그게 훨씬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안 되면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꼭 기계가, 만약에 기계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청소가 된다면 그게 좋지요. 훨씬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강선영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만에 하나라도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행하는 방법, 어떤 장비를 쓸 것인가 어떤 업체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우려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군인들은 누구나 다 충기를 다루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뭘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해는 충분히 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태워질지 안 태워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태워진다면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겠습니다.

65번 정부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2쪽입니다.

92쪽과 93쪽은 책임운영기관 두 군데에 관한 예산입니다.

먼저 92쪽, 연번 66번입니다.

국방전산정보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 중에 국방 재해복구센터 보강 사업입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를 고려해서 재해 발생 시 군 정보시스템도 즉각적인 서비스 전환이 가능하도록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바로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연번 67번입니다.

세부사업명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입니다.

국방홍보원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국방홍보원의 내역사업인 뉴미디어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집행액은 얼마예요? 뉴미디어 제작 사업 실집행액.

○국방홍보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실집행률은…… 다 집행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누굽니까?

○국방홍보원장직무대리 이은영 홍보원장 직무대리 서기관 이은영입니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금액은 어느 정도 되냐고.

○국방홍보원장직무대리 이은영 뉴미디어 사업은 16억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16억인데 그러니까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국방홍보원장직무대리 이은영 24년도도 16억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얼마냐고요.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때?

○국방홍보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미집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이거 제가 봤을 땐 10억 증액이 필요한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국방홍보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홍보원 홍보 제작 예산이 지금 한 30억이 감액된 상황이어서 그 큰 틀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뉴미디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00, 4000 정도의 비용으로 편수당 제작을 하고 있어서 가성비가 높은 상황이고 특히나 K-방산이나 국민의 군대 관련돼서의 홍보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면서 100만을 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수를 늘리는 것이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94쪽입니다.

연번 68번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유와 참고 설명 잠깐 드리면 26년도 방위비 분담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총 1.6조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6400억, 군사시설에 7200억 그다음에 군수 분야에 2325억이 돼 있고 이 중에 군사시설 개선에 관한 부분만 지금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현재 군사시설개선에서 현재 예정된 사업의 설계 및 공사 추진 현황을 고려해 볼 때 과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105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는 데는 위원님들 전부 의견이 없으시네요.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95쪽입니다.

연번 69번입니다.

사업명 PKO 파병 사업입니다.

오른쪽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동명부대가 소속된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의 임무가 2026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동명부대가 계속 주둔을 전제로 시설, 장비, 물자 획득 예산 14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96쪽입니다.

연번 70번, 사업명 무관부활동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해외 주재 재외무관부 대도청 장비의 경우 미설치 사무실 7곳 중, 그중 5곳의 신규 설치 예산 1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97쪽입니다.

연번 71번, 세부 사업명 정책기획지원 사업입니다.

8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97쪽 상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주관 핵억제심화교육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여비 및 KIDA 교육 위탁을 위한 일반용역비 1억 1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9000만 원 증

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사 역제 심포지엄 개최 비용 부족분 1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98쪽 상단입니다.

한미 확장역제 발전, 핵협의그룹 본회의 참석 비용 부족분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실무토의 참석 비용 소요재원 부족분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 참가 대비 부족분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입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위게임 참가 부족분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사이버전문인력이 사이버 작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비 9억 6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71의 두 번째, 9000만 원 증액 필요 이게 외교부도 증액이 올라오나요? 이게 국방부하고 외교부가 차관급이 공동 주관하는 협의체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외교부 것도 국방부에서 내 주는 건가?

○국방부차관 이두희 여비는 각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요? 이게 외교부 원청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준장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급 회의입니다. 그리고 위 예산은 따로따로 해서 갑니다.

○부승찬 위원 외교부가 원청을 하는 건 아니고?

○국방부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0쪽입니다.

여기부터는 국방행정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100쪽, 연번 72번입니다.

보시면요 세부 사업명 기본경비-직책수행경비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 상단을 보시면요 중령, 소령 및 군무원 3~4급 직책수행경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신설 또는 인상하기 위한 28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중령, 소령 군무원 3~4급을 다 올리는 것보다 일단 현재 시급한 소령 직책수행경비만 우선적으로 올리는 99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114.1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기본경비 특성상 대규모 증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되는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소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제가 지금 밑에다가 다시 소령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만 해서 해 달라고 한 건 왜냐하면 여기서 4급하고 5급은, 3급 이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군무원으로 재취업된 분들이에요. 아니면 일정하게 군무원으로 오신 분들 같으면 이분들은 60세까지 보장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소령은 지금 45세고, 50세까지 점차 늘어나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소령인데 밑에 대위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 외 근무수당 못 받고 대위보다 소령이 보수가 차이 나니까 올려주는 건데.

여기에 군무원까지를 포함하는 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금액 자체가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일단 소령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차관, 좀 전에 이야기한 114.15 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좀 전에 이야기대로 3·4급 군무원 포함하는 금액이 114억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러니까 소령급 직책경비 신설을, 그러니까 강선영 의원님 안에다가 군무원 4급을 추가한 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3급은 아니고 4급만?

○국방부차관 이두희 4만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4급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강대식 왜, 유독 4급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3급까지는 받고 있는데……

○소위원장 강대식 받고 있다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4급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교들도 중령은 4급이 되고 있는데 소령부터 못 받고 있고 군무원 3급은 갑, 을, 병으로 나뉘어서 받고 있고 4급부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소령 영관장교도 한 계급 아래까지 되고 군무원도 3급에서 4급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수정안을 저희가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돈이 50억 걸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5억이니까……

○임종득 위원 지금 군무원 4급, 3급이 많지 않아요.

○소위원장 강대식 많지는 않으니까 4급하고 그다음에 소령하고 그래 가지고……

○임종득 위원 그렇게 갑시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강대식 그 정도, 5억 정도 더 늘려서 4급 넣는다 하는 건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우리 정부안대로 114억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현재 받고 있지 않는 소령과 군무원 4급에 대해서만 14억 증액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101쪽입니다.

연번 73번입니다.

세부 사업명 국방행사지원 사업입니다.

3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제일 상단에 인도태평양 군 최고위급 회의 관련 예산이 원래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개최지가 캐나다로 결정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6년 블랙이글스 국제연수 참가국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요경비 5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호국영령 위령대재라는 행사를 위해서 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위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다 좋습니다. 세 번째, 호국영령 위령대재 50%를 국고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 증액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짜리 행사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1억인데 그중에 50%는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50%인 5000만 원은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라는 우려가 뭐냐면 종교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인정하는 5대 종교 하면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이렇게 4대 종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교만 지원한다 아니면 특정한 종교만 지원한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예산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더 각 중단, 중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같이 차별받지 않도록, 오히려 문제 제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예산으로 세워서요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같이 50 대 50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종파가 행사를 하는데 기독교는 약 3억 원, 천주교는 약 5000만 원, 불교는 약 1억 원인데 가능하다면 3대 종파 공히 일정 수준의 지원이 되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동의를 하고. 현재 올라온 안이 이렇게 단일 안으로 예산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거기에 수용을 하고 동의한다는 겁니다.

○**황명선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우리 군시설 내에, 군부대 안에 교회, 성당 또 사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원불교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보통 보면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는 각 중단에서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행사처럼 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후에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한 종교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세요, 50%’ 이렇게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행사를 몇 번 할 수는 없고. 한 번 하면 각 중단이 전부 다 함께 참여해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50%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각 중단에서 돈을 모아서 같이 함께하는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국방부 차원에서 한번 지혜를 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동의합니다.

○**백선희 위원** 먼저 하세요.

○**임종득 위원**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황명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불자 간부들 이쪽만 해 주게 되면 당연히 내년에는, 기독교 쪽에 3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1억 5000 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5000으로 확보를 해 달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요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불자라고 하는, 불교계라고 하는 거를 아예 빼버리시고 원하는 쪽이 있으면 5000만 원의 범위 한도 안에서 한번 집행을 해 보고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증액이 되더라도 황명선 위원님 말씀처럼 논란의 여지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각 종단에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1억 5000으로 앞의 ‘전군의 군중법사들이 참석하여’ 이걸 빼 버리고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게, 호국영령 추모제 얼마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저도 황명선 위원님 이야기하는 데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조그마한 지자체 단체도 보면 한 종파에 이렇게 치우쳐서 주면 득달같이 다음 해에는 다른 종파들이 우리도 해 줘, 이렇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중법사들 이런 특정 종파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것은 빼 버리고 그냥 호국영령 추모제 이래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약간 1억을 증액하든지 각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각 종단 종파에다가 나눠 준 다든지 이런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명선 위원** 다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증액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결위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산에 담겨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6월 달에 한다고요, 호국영령의 날?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합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국방부가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각 종단들이 도네이션해서,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예결위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는 똑같은 문제 제기를 받을 거예요. 아예 거론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 국방부에서 조금 이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소위에서 동의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데 지금 오늘 심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는 종교가 4대 종파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4개 종파인데 호국보훈의 달 각 종파의 종교 행사를 위하고 6·25 전쟁간 전사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 비용 등으로 총 1억 5000이나 2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1억 5000, 2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종교끼리 괜히 경쟁 붙이고 이렇게 자기네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서로 경쟁 이런 거라든지 싸움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우리가 제목을 잘 붙여야 돼요.

○**황명선 위원** 이렇게 특정한 종교로 딱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안 좋은 사례가 돼서, 싸움 붙인다고요. 참 그렇네.

○**소위원장 강대식** 일단 호국영령 위령대재라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 국고를 지원한다. 호국영령 위령대재라는 것은 이 종파가 아니더라도 맨날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조그마한 단체들이 전부 다 이런 걸 많이 하거든. 그런데 잘못 이것 지나갔다가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부승찬 위원**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이게 또 상징화

가 되면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이것 빼 버리시지요.

○백선희 위원 빼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국방부 예산에서 어떻게 조그마한 예산을, 이렇게 각종 단 종파에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단체의 행사를, 작은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기……

○소위원장 강대식 이게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런 행사에 예산 태우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예산을 국방부에서 준 적이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전반적인 역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특정 종교 행사를 이렇게 지원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21대 때 내가 국방위 하면서 이런 목의 예산 태우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백선희 위원 삭제합시다, 그러면.

○소위원장 강대식 우리가 괜히 국민들 위화감 조성하고 서로 경쟁을 붙이든지 이런 것은 잘못하면 좋은 뜻에서 했는데 아니한 것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하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조금 적더라도 똑같이 2500, 2500, 2500 이렇게 같이 줘서 우리가 국방위에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까 이걸 가져가서 너희 따로 위령대재를 지내든지 아니면 각 4개의 종파가 모여서 같이 이 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부승찬 위원 정부 예산으로 안 맞아요.

○황명선 위원 정부 예산으로 안 맞는다.

○임종득 위원 안 맞아요. 같이 모아 가지고 행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떼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소위원장 강대식 빼 버립시다.

○강선영 위원 질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다른 건 모르겠고, 이번에 왜 두바이 에어쇼가 취소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것은 지난번 국방위 때 장관님께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혹시 타국에서 우리나라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조라든지 아니면 경비를 좀 대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초청만 해 버리고 너희 돈으로 알아서 다 오너라 이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소요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와 주십사 이 애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까지는 저희들 가서 해외에서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하는 목적은 국위선양과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목적으로……

○소위원장 강대식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만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우리 예산으로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데 향후에 블랙이글스가 워낙 해외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고 또 많은 국가들이 와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예산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겠지만 지금 사실 여러 관계에 얽여 가지고 이번에 참석을 못 하는데 큰 비행기를 띄워서 분해해 가지고 그것을 실어 가지고 우리가 나를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다양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101페이지 세 번째 것은 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앞으로 연번 기준으로 5개 남았습니다.

자료 102쪽입니다. 연번 74번입니다. 사업용 부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4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102쪽 상단의 첫 번째입니다. 당직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의 수준(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총 28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투역량강화비를 위해서 7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대지휘활동비를 위한 8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103쪽, 네 번째입니다.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국방분야 민간 아웃소싱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52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우려되는 부분이 복지개선소위에서 제일 1번으로 올리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당직.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아직까지 100%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런데 뒤에 2개, 3개 이 적은 돈이 아닌 돈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쭉쭉쭉 달려 오는데 이걸 만약 기재부가 이 중에 뭐부터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상임위 전체가 심사숙고해서 한 그 안부터 먼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국방부 측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저희들 심정이야 올리는 것 다 되시면 좋겠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 우선순위 배정해 놓은 순위대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가 합심,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황명선 위원 소대장이 몇 분이나 돼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우리 군 전체 소대장 숫자 말씀입니까?

○황명선 위원 예, 초급간부 2000원 인상인데 82억이어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2000원 인상하는데 82억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 같은데. 그건 이따 알려 주시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건 이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는 거니까 7000원으로 상계를 해 보면 나누기하면 되지. 82억 나누기 7000 해 보면 나오지요.

○황명선 위원 이건 동의하고요.

그다음 진행하십시오.

○소위원장 강대식 대략 한 1만 100명 정도 나오겠네요, 보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104쪽입니다. 연번 75번 사업명 군 배상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해당 사업은 예산이 매년 부족해서 국회의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신속한 국가채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1000억 7300만 원의 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이게 전군 과거사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동의하는데 문제는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투명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말고 나중에 이 군 배상과 관련해서 따로 현안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차관님, 꼭 1000억이 있어야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실제 비용은 이렇게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증액이 안 되고 부족하면 배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으로 충당을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있어요?

백선희 위원.

○백선희 위원 이것 말고, 제가 하나 앞부분에 놓친 게 있어서요.

아웃소싱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대식 예, 지나갔지만 정리……

○백선희 위원 103페이지의 국방분야 민간 아웃소싱에서 52억 80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런데 설명 자료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시범부대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8개의 인력 규모로 보면 몇 명을 대체하는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산출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그 부분, 몇 개 부대 그다음에 몇 명 그다음에 이것을 몇 개월 정도 시범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기획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는 총 8개 부대입니다. 육군이 6개고 해군 하나, 공군 하나가 되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체 효과는 현재 한 32명 정도의 현역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8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부대당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계획은 1년 단위로, 12개월로 올렸습니다.

○백선희 위원 질문을 드리는 것은 32명에서 8명이 근무하게 된다 그러면 24명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1년 단위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24명의 절감 효과가 있는데 52억이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단가를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1년 단위로 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요?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이게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되면 1월에도 당장, 물론 1개월~2개월 정도의 어떤 공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당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위병소 근무인력들은 대략 월 326만 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CCTV 쪽은 조금 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월 479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세부적인 산출 내역은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예.

○소위원장 강대식 됐습니까?

○백선희 위원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다음 배상금 그 문제도 차관께서 혹시 기재부하고 의견 나눌 때 예를 들어서 증액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조금 삭감을 더 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가령 배상금은 1000억이 안 되고 한 500억만 되더라도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낮춰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게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안 그러면 나는 아예 반을 잘라 가지고 500억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면, 이때까지 일반회계였고요. 105쪽부터는 군인복지기금 3쪽지가 남아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군인복지기금 지출 첫 번째입니다.

세부사업명 복지시설 확보 사업입니다. 내역이 3개가 있습니다.

수정의견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가 계룡스파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비 6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역사업 중 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체력단련장 신규 조성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비 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룡대 내의 시설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설계비 등 21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계룡스파텔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나나요? 전혀 수익이 안 나고 매년 적자인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익이 있는데 저희가 수익을 가지고 그대로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 구조가 아니고 수익은 복지기금으로, 다시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저희가 예산처럼 기금에서 할당받아서 예산을 타 쓰는 구조가 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연 어느 정도 여기서, 영업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

도 돼요? 아시는 분.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실장입니다.

계룡스파텔의 연간 수입은 한 10억 정도 나고 있고요. 그것은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계룡스파텔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도 복지기금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 계룡대 쇼핑타운 내 복지센터와 관련되어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설계, 공사, 자산취득, 영업보상 이게 정부안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계룡에서 특히 신도안면은 전부 다 군인, 군 가족분들이 거주하는, 아예 다 그분들입니다.

군복지센터가 당초의 목적대로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거의 다 폐쇄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목적대로 군가족과 퇴직한 군인분들, 우리 장병들 이용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도 수용하겠다는데 의지를 갖고 기재부랑 막판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자료 106쪽입니다.

복지기금 두 번째 항목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취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국방전직교육원에서 하는 전직지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전직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15억을 써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해서 여기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군을 전역한 이후에 취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 필요한 직종들이 신규로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새롭게 트렌드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다 교육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

고,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5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개선하고 그다음 해 개선하고 개선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이것을 관리할 비용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구축비용은 15억 예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프로그램을 다시 신규로 도입하고 교육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교육 쪽의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AI 취업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민간에. 어떤 취업이 적성에 맞는가도 있고 그리고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도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 이야말로 민간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국방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거야말로 민간하고의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신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전직교육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소집교육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군생활 주기에 맞춰서 단기복무 병사, 단기복무 간부, 중기복무 간부, 장기복무 간부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취업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연구용역을 해서 23년도는 연구용역, 25년도는 ISP용역으로 2.6억 원을 투입해서 했고 KIDA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했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희 위원 이용자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성과 %……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기조실장이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전직교육원에 교육 등록을 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현재 한 46% 정도 나오고요. 국가보훈부에서 전체 전직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한 68%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근에 국방부가 전직교육원에 포커스를 주는 인원들은 장기복무자들보다는 중기복무자들, 그다음에 단기간 근무하는 단기복무자들입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ROTC나 학사장교,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을 전역한 이후에 나이도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CTC라고 해서 지방의 14개 군대에서 경력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한 기관마다 연간 예산이 한 10억 이상 정도 됩니다. 14개 기관이면 연간 한 130억 정도가 되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전체 총 사업비는 5년간 구축했을 때 한 89억 정도 예산을 하는데요. 5년간 89억을 하면 CTC, 지방에 있는 센터를 저희 생각에는 개편을 해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복무기간 동안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강이나 구직이력이나 상담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 주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인사혁신처라든가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연계를 하는 시스템으로 ISP가 되어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소위자료 106쪽입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복지기금 지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부사업명 군간부 전세자금 이차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의견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지난번 군복지개선소위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우선순위에 있던 내용입니다.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에게 대신 전월세를 지원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여건 보장을 위한 전월세자금 지원사업 67억 72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주거지원 개정은 일반적으로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므로 복지기금 지출에서 67억 원을 증액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출에서 복지기금을 전출하는 전출금 67억 원 증액과 복지기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증액이 같이 되어야 실효성 있는 예산 계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은 복지기금사업으로 지출이 늘어난 만큼 군인복지기금 전출금도 67억 72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이게 복지개선소위의 두 번째, 2번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백선희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사이버인력 역량평가 체계 구축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지금 거의 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앞에 두 항목하고……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아까 보류사업 3개를 남겨 두셨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3개 남겨 났는데 지금 백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됩니까?

○백선희 위원 13번에 사이버 전문인력 역량평가 체계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지 연구용역인지가 조금 모호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차관님께서 연구용역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구용역비로 3억이 적절한가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에 역량평가체계개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연구를 실시했다라고 했으니까 작년에 시행한 거니까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타당성 검증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량평가체계개발 타당성 검증, 지금 13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하셨습니다. 타당성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국방부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방위정책관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지금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24년에 이미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셨고 그러면 그 결과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버 전문인력 역량평가체계 ISP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 타당성도 없는데, 확인도 안 됐는데. 이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이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이버 전문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평가한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개별 역량, 전문성은 지식·기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 수준을 평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역량 개발, 지원, 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이버 전문인력 역량평가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정보기술환경 분석, 제도 규정 분석,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업무 분석, 정보시스템 분석, 목표모델 수립, 정보화전략 수립,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제도 규정 개선안 수립 그다음에 이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사이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ISP 정보화 전략 계획을 역량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내용에 역량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역량 검증을 했더니 어느어느 역량이 뛰어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교육 체계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찾아봤을 때 이런 역량과 관련된 ISP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역량이 있는지, 어떤 교육이 향후에 필요한지. 그런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이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실제로 사이버 전문인력 역량평가체계 ISP를 하는 것하고 좀 내

용이 상이하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3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프로그램 개발도 아니고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하고 절대적으로 액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내지는 이것을 완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으니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목적에 맞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예산을 사실은 3억 전액을 삭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국방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연구원에 예산이 많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부분들이 세밀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방연구원은 정책연구를 주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직접 사이버와 관련된 운용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영역이 다수 포함이 돼 있다는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3.9억 원은 ISP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을 위한 것이고 본예산은 28년도부터 29년도까지 45억 원을 시스템 구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종의 연구용역인 것이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ISP가 단순 연구용역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을 수립하는 타당성이라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이 예산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ISP 수립 추진을 위해서 나와 있다 그래서 연구용역의 성격인지 그래서 아까 여쭙았던 것입니다.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한 4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정도 예산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4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45억 원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 연구는 그것을 위한 구조설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구조설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이버 전문인력의 역량을 평가하고 이 역량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부분과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이하다고 판단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이고 이 역량 부분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마 실무선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ISP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지금 백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차관님이 대답하시는 게 잘 안 맞아요.

○백선희 위원 달라요.

○소위원장 강대식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역량평가 프로그램, 좀 전에 오전에 대답할 때는 전체 역량평가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선제작업이다라고 나는 설명을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백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은 뒤로 가기 위한 하나의 앞인 게 안 그러면 역량평가를 했는데…… 이 내용에 담긴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내용하고 상이하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방위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역량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하는 사전 선행연구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선행연구?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우리가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뒤에 후속사업으로 구축을 한다?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차관님이 이야기하는, 45억짜리를 구축한다 이 말입니까?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내용이 사이버 전문인력의 전문성의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300여 명 정도가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역량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여기 보내고 이 사람은 여기 보내고 적재적소의 보직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역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역량 개발 교육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객관적 역량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인 역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역량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역량을 사실은 이렇게 3억 그리고 이후에 45억, 48억을 들여서 이 300명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48억을 들여야만 알 수 있는가, 사실 대략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을 할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하고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또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저한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어떤 내용을 연구를 하겠다는라고 하는 이 연구는 거시적인 부분이어서 맞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방위정책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갈수록 더 헷갈려요. 설명에 있는 것은 개인적 역량평가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예산은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2024년 기준으로 반영돼 있어요. 그게 일식이라고 돼 있어서 무슨 프로그램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또 소프트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프트웨어, 평가체계

이게 다 중복되니 이것은 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황명선 위원** 위원장님, 우리 효율적인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전부 다 위원님들이 요구해 가지고 증액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강선영 위원** 저 안 했어요.

○**황명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를 담아서 증액안으로 편성은 이렇게 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백선희 위원님하고 강선영 위원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보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제안했으니까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의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황명선 위원** 아니, 강대식 위원님도 여기 있네.

○**소위원장 강대식** 있지만 그래도 같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야 동의를 하지 무작정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시고.

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요.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사이버 전문인력 역량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사업은 사전 연구사업입니다. 현재 사이버 특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하는 사업이고.

○**소위원장 강대식** 좀 전에 말씀하신 2024년부터 시행해 왔다는 그 이야기는 뭐니까?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24년에 역량평가체계 개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타당성을 선행연구를 하고?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2025년도는 뭐 했습니까?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25년도는 실질적으로 사이버 전문인력 역량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항목들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선행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2024년도에 이어 가지고 2025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뭐를 했냐고요.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저희가 작년에 이 역량평가체계 ISP 예산을 건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넘어왔고 2024년도에 최초로 그렇게 했고 이제 2026년도에 그다음 단계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 3억 900만 원이 필요하다?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3억 900만 원으로 선행연구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45억이 투입돼 가지고 구축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런데 좀 전에 백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2024년도에 모든 용역이 끝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들려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백선희 위원 어쨌건 개인 역량평가를 하는데 아마 24년도에 최소한 1억의 연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3억의 연구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4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총 50억이 들어가는 사업, 약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맞습니다.

○황명선 위원 정말 얘기하겠지만 이것 말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 사업비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강대식 요청했지요. 요청했지만……

○황명선 위원 저는 이것 동의 못 하겠어요. 이것 사업 뭐 하러 합니까? 여기 부승찬 위원님이나 강대식 위원님이 이것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한 거야.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

○강선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황명선 위원 아니, 이게 뭐냐고. 나는 이것 동의 못 해요.

○소위원장 강대식 하지 마세요.

○황명선 위원 동의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존중하려고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대식 동의하지 마세요.

더 질의할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많으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보류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26번입니다.

고소작업대 관련된 내용으로 3사단만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26번, 32쪽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연번 26번 고소작업대 도입 예산 2억 원, 이 부분 가지고 아까 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인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26번, 고소작업대 관련해서 GOP 사단과 해강안 4여단, 해병대 포함한 4여단 13개 부대 35개 소요, 총 14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전문위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3사단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GOP 전방, 다른 타 부대들 해 가지고 지금 차관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14억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두 번째 보류사항, 같은 33쪽입니다.

27번 병참물자 부분입니다.

추락 보호 에어백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 부분 강선영 위원님 혹시 개별적으로 받았습니까?

○강선영 위원 못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못 받았어요?

○강선영 위원 예.

○소위원장 강대식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추가로 말씀……

○소위원장 강대식 예.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게 에어백 조끼인데 에어백 조끼는 신규 품목인데 현재 우수상품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각군 수요와 보급 기준 정립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게 혹시 군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걸 사용한 적 있어요? 아니면 첫 사용을 우리 군에서 시도를 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중에 상용품으로 사용 중인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구매해서 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그런 것은 있습니까? 군수관리관님.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m 이상 공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면 에어백같이 이렇게 공기주머니가 터져서 척추나 머리 이런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서 사회에서 아주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이것을 그냥 기준도 없고 이렇다고 해서 보류시킬 게 아니라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국방부 자체 내에서 정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 진단을 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그냥 여기에 일괄적으로 2m다 그러면 2m 이상 이상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입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안전사고가 빈번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국방부에서 정말 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이 보호 에어백이 그런 데 맞춰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냥 ‘2m 이상’ 이러면 2m 이상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거의 다 2m 이상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안전 진단을 거쳐서 이런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니 20억 원어치의 에어백 구매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가야지요. 저는

이것은 찬성합니다.

○**황명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뭐 찬성도 안 한 사람 없고 전원 찬성……

강선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강선영 위원** 큰 틀에서 우리 장병들이나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상용 장비를 이렇게 구매하면,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작업에 한정할 것이냐 전투 분야에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작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인이니까 안전한 데 쓰지 마라 그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물자배당표라든지 이런 곳에 명확하게 이것은 어떤 때 예를 들어서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러 올라간다든지 작업장을 하러 올라간다든지 건물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을 입히지 않은 지휘관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다 입힐 수 없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게 없어서, 못 입힌 지휘관은 100% 처벌받습니다, 이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충분히 보급하지 못할 수준으로 갖고 있으면 지휘관들과 관리자들의 또 하나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명심하고 이게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보급 기준이라든지 사용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부분도 같이 저희가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전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연번 41번 하나 남아 있습니다.

41번 해군 함정 헬기유도등 시스템 관련해서 그때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정부안대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42번 아까 어떻게 정리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간부양성교육 부분은 아까……

○**황명선 위원** 잘 정리해야 돼, 잘못하면……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이게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 항목입니다. 학군생활지원금 인원 감소분 감액과 감액과 부교재비 감액과 지원금 단가 증액 세 가지가 있는 건데요. 따로따로 가면 감액은 받아들여지고 증액이 안 받아들여질까 봐 아마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학군생활지원금 관련해서는 인원 감소분과 단가 증액분을 합해 가지고 그냥 24억으로 뭉뚱그려서 가는 전략으로 지금 여기 소위에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안 받고?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안 받고 세 번째로 반영돼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정부안에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안에 돼 있는 것은 살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안을 예를 들면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키면 될 텐데 첫 번째 정부안에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액을 시켜 버리면 세 번째 것, 감액에서 증액은 어렵잖아요. 세 번째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전략이 국방부에 리스크가 올 수 있어요. 정부안에 지금 태워져 있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뭔가 지키고, 이것을 예산 전용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냥 우리들의 방식이에요, 계산하는 방식이야. 1번 날리고 세 번째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야. 우리가 신규로 제안해 가지고, 여기서 제안해 가지고 된 사업 여러분들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어도 예결 마지막에 예산 반영하는 게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과거에 겪었기 때문에 경험을 보면 첫 번째 이것을 감액시켜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살리고 그리고 세 번째 12억 4500만 원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야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첫 번째가 순수 감액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날려야 되고 세 번째는 감액과 증액이 통합된 안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안을 살리자는 게 그 전에 심의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것을 아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첫 번째는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것이예요, 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 아니지요, 첫 번째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신규 아닙니다. 들어 있는 것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강대식** 신규사업이 아니고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날린 거지, 인원이 701명이 줄어 버리니까……

○**황명선 위원** 그것은 아는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금 들어 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첫 번째 들어 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황명선 위원** 세 번째는 들어 와 있는 게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사업 자체는 들어 와 있는 겁니다. 들어 와 있는데 금액이 다른 겁니다.

○**황명선 위원** 1·2·3번이 다 정부안에 들어 와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들어 와 있습니다. 사업에 다 들어 와 있고 금액이 인원 곱하기 단가로 결정이 되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산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 단가를 높이는 겁니다. 숫자를 높이는 겁니다. 사업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항목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신규로 사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황명선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지금 여기 소위 심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광주 영외 탄약고 이전 사업 있잖아요. 탄약고 이전, 누가 알아요? 전혀 모르세요? 준비 안 된 자료예요?

이게 보면 정말 우려돼요. 이게 이번 안에도 안 올라왔는데 총사업비가 3262억 거기에 지금 총집행금액이 2681억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광주 기지 이전 사업으로 인해서 올 스톱이 돼 있어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681억 원을 집행하고도 한 600억을 아끼겠다고 올 스톱을 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6년도 예산안에 15억이 반영됐는데 25년도에도 보상비로 15억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넣으려다가 제가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설계비 3억 5000 그다음에 공사비 1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설계비라도 3억 5000이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잘 봐 주세요. 2681억 원을 들여서 광주 기지 이전한다고, 언제 이전할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거든요. 그 기지가 계속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한다고 그래도 10년, 20년 후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길게는 20년까지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차관님이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시설국장이 위원님께 별도로 대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또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위원장 강대식 말씀하세요,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차관님, 성인지 예산이라고 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백선희 위원 국방부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성인지 예산에 해당하는 항목 총 얼마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군인권개선추진단 양성평등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를 받고 어쨌건 이번 국방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신 것 맞으시지요?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백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방부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 됐습니까?

○백선희 위원 예.

○소위원장 강대식 정책관님, 아까 전에 없었던 걸로 하자 한 것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예, 감사합니다.

사이버전문인력 역량평가체계는 현재 저희가 사이버전문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역량평가체계 개발 타당성 검증 사전 선행연구를 실시했고 그래서 그 실시 이후에 작년에는 역량평가체계, ISP 말그대로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연구 사업비를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저희가 반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KIDA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이버 영역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 또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는 민간에서 더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이버 역량을, 개인별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하기에는 솔직히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련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이후에 저희가 28년부터 29년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45억을 예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어떤 직위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각 개인별로 평가를 하고 그 개인별로 어떤 직책에 맞는 능력이 되는 인원들을 보직을 하고 또 그런 능력들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역량 강화비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이버전문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맞게 개인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 운용이 됨으로써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왜 제가 다시 물어봤는가 하면 기 2024년도에 돈이 1억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이거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 기 1억이 들어갔던, 소요됐던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소위에서부터 빼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아예 이 사업은 앞으로, 어쩌면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수도 있는데 우리 소위에서 갑자기 빼 버려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또 오늘 앉아 있는 소위 위원들이 나중에 많은 책망을 받을 그런 것도 있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일단 2024년도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도 소위에서 올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아까 전에 황명선 위원님 화가 나서 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묻는 겁니다.

○**황명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소위원장 강대식** 이야기하세요.

○**황명선 위원** 계룡에 군 가족, 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두로 일단 근거는 만들어 놔야 될 듯한데.

과거에 군 파크골프장, 유희지, 천변 옆에 유희지가 있는데 거기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비 몇천만 원이라도 세워서 한번 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선희 위원**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저는 사이버전문인력 적재적소 이 사업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한테 준 내용으로 봐서는, 저한테 세부자료를 줬는데 저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충실하게 진짜 역량 개발하고, 이후에 역량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충실하게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제가 ISP 예산산출내역서 업무를 보니까 환경분석, 현황분석부터 시작해서 이행계획 수립, 세부계획 작성, 업무 규모, 특성 나뉘져 있는데요. 이거 한글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한글의 문해력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 내일 아침 9시 정도에 저희 사무실에 누가 직접 와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보류입니다.

○**국방부방위정책관 최용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저한테도 설명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대식**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돼요.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안 계시지요?

이것으로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과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국방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들은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방안을 잘 모색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가 증액하여 주신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소위에서 심의하여 주신 사업들이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와 또 예산 당국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병무청, 오후 2시부터 방위사업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주 백선희 부승찬 임종득 황명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기획관리관 김경욱

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지능정보화정책관 염주성

법무관리관 홍창식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정책기획관 윤봉희

국제정책관 이광석

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인사기획관직무대리 문희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보건복지관직무대리 김진성
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군공항이전사업단장직무대리 장성준
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직무대리 김현철
국방홍보원
 원장직무대리 이은영
합동참모본부
 국제군사협력과장직무대리 김홍준
육군본부
 예산차장 차종희
해군본부
 예산차장직무대리 이상희
공군본부
 예산차장 김은희
해병대사령부
 예산처장 유정규